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양 보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해 지명의
온라인 표기에 관한 연구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최 미 선

동해 지명의
온라인 표기에 관한 연구

양 보 경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최 미 선

인 준 서

최미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의 현실을 반영하며, 동시에 오프라인 이상의 파급력과 확산 효과를 갖는다. 현재 동해 지명은 온라인상에서도 일본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은 한국과 일본이 당면한 문제로서 영토 분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명 오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 표기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각 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 내용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 나은 대응활동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00개의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동해 지명의 표기 내용을 조사하였다. 또한 2007년 동북아역사재단의 보고서에 제시된 20개의 웹사이트를 정밀 조사하여 동해 지명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동해 지명과 관련된 해외 언론의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동해의 표기 유형은 동해 단독표기, 일본해 단독표기, 동해우선표기, 일본해우선표기, 복합적 표기, 미표기, 기타로 총 7개의 형태로 구분하였다. 또한 동해 지명의 오류에 관한 대응 활동을 하는 기관들을 국가·학술·민간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응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0개의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 표기는 일본해 단독 표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표기 형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비교적 많이 있었다.

둘째, 20개의 웹사이트 중 두 개의 웹사이트에서 동해 지명의 표기 내용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다. 위키피디아 웹사이트는 미표기 형태로, 벨트아틀라스 웹사이트는 동해 우선 표기 형태로 바뀌었다. 두 개의 웹사이트 모두 동해 지명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셋째, 한국 및 일본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전송한 기사에서도 일본해 지명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해외 본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담당자 및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본사를 대상으로 동해 지명에 대해 바로 알리고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청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넷째, 동해 지명 오류에 대응하고 있는 기관들의 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관마다 중복되는 활동이 있었고, 정부와 학계, 민간의 협력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들의 장점을 살리고 각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학술 단체 및 기관에 동해 지명업무를 위탁하여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 현재의 기관들이 대응 활동을 분담하고 협력 체계를 갖추는 방안, 각 기관들의 온라인상의 대응 대상을 분담하고 협력 하는 방안, 정부와 학계, 민간 단체가 하나의 협력 체계를 갖추는 방안으로 총 네 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동해 지명에 관한 문제는 해당 업무의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자료의 구축 및 연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며, 동시에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가능한 첫 번째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동해 지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세계지도에 표기된 동해 지명에 관한 공시적·통시적인 연구, 일본에

서의 동해 지명 연구와 대응 활동, 한국과 일본의 동해 지명에 관한 활동의 비교, 동해 지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과 분위기에 관한 연구, 동해 지명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에 관한 분석 등 다각적인 측면의 동해 지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바탕으로 되어야 동해 지명에 관한 대응 활동이 더욱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 례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자료	4
3. 선행연구	6
II.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 표기 분석	10
1. 100개 온라인사이트의 동해 표기 현황	10
2. 20개 온라인사이트의 동해 표기 현황	16
1) 선정 기준 및 조사 방법	16
2) 조사 결과	18
3) 주요 웹사이트의 사례 분석	19
(1)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20
(2) 벨트아틀라스	23
(3) 텍사스대학도서관	24
(4) 블룸버그통신	25
(5) 로이터통신	29
3. 동해 지명 표기의 유형별 분석	32
1) 단독 표기 형태	33
(1) 동해 단독 표기	33
(2) 일본해 단독 표기	34
2) 병기 형태	34
(1) 동해 우선 표기	34

(2) 일본해 우선 표기	35
3) 복합적 표기	35
4) 미표기	36
5) 기타	36
Ⅲ. 지명 오류 시정 기관의 활동 조사	40
1. 정부 및 관련 기관	41
1) 외교통상부	41
2)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42
3)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45
4) 동북아역사재단	47
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50
2. 학술 단체 및 기관	52
1) 동해연구회	52
2) 동해포럼	56
3)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58
3. 민간 단체 및 개인	60
1) 민간기획단 반크	60
2) ‘다음 세대를 위해’	63
Ⅳ. 지명 오류의 대응 분석	66
1. 동해 지명 표기에 대한 대응	66
2. 온라인상의 대응 과정	68
1) 정부 및 관련 기관	68
2) 학술 단체 및 기관	69

3) 민간 단체 및 개인	70
3. 온라인상의 대응 분석	70
1) 대응 시기	70
2) 대응 과정	71
3) 대응 기관	73
4) 대응 내용	75
V. 기존의 대응 보완 및 새로운 대응 방안	79
1. 동해 지명 표기에 대한 기존의 대응 보완	79
2. 온라인상의 대응 방안	80
VI. 결 론	87

참고문헌

ABSTRACT

표 차례

<표 1> 온라인상의 주요 국가 웹사이트의 동해 표기	12
<표 2 > 100개 웹사이트의 동해 표기 검색 결과	16
<표 3 >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영어판)의 변경 내용	20
<표 4 >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동해 표기	21
<표 5 > 벨트아틀라스의 동해 표기 검색 결과	24
<표 6 > 텍사스대학도서관 웹사이트의 지도 검색 결과	25
<표 7 > 동해 지명 표기의 유형 분류	33
<표 8 > 20개 웹사이트의 동해 표기	39
<표 9 > 동북아역사재단 디지털자료실의 동해 홍보 동영상 조회수	49
<표 10> 한국문화교류센터의 교과서 오류 시정 활동	51
<표 11> 동해연구회의 활동 내용	55
<표 12> 동해연구회의 연구 성과	55
<표 13> 혜정박물관의 동해 관련 전시	58
<표 14> 반크의 동해 관련 왜곡 시정 성과	63
<표 15> 각 기관 및 단체의 동해 지명 관련 주요 대응 활동	66
<표 16> 동해 지명 관련 온라인상의 대응 활동 기관 및 단체	68
<표 17> 동해 지명 관련 온라인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 현황	74
<표 18>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온라인상의 활동 내용	78

그 립 차 례

[그림 1] 100개 웹사이트의 동해 지명 표기 형태 비율	16
[그림 2]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영어판)의 ‘korea’ 검색 결과	21
[그림 3]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영어판)의 ‘동해’ 검색 결과	21
[그림 4] 벨트아틀라스 러시아 지도 검색 결과	24
[그림 5] 블룸버그통신 동해 관련 기사의 동해와 일본해의 표기 비율	27
[그림 6] 블룸버그통신의 일본해 표기 기사의 발송국가 비율	28
[그림 7] 블룸버그통신의 일본해 표기 기사의 내용별 비율	28
[그림 8] 로이터통신 동해 관련 기사의 동해와 일본해의 표기 비율	31
[그림 9] 로이터통신의 일본해 표기 기사의 발송국가 비율	32
[그림 10] 로이터통신의 일본해 표기 기사의 내용별 비율	32
[그림 11] 외교통상부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42
[그림 12] 해외문화홍보원의 오류 대응 과정	44
[그림 13] 해외문화홍보원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45
[그림 14] 국립해양조사원의 동해 웹사이트의 구성	47
[그림 15] 동북아역사재단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49
[그림 16] 한국문화교류센터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52
[그림 17] 동해포럼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57
[그림 18] 혜정박물관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59
[그림 19] 반크의 오류 찾기 과정	61
[그림 20] 반크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62
[그림 21] ‘다음 세대를 위해’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64
[그림 22] ‘다음세대를 위해’ 웹사이트 광고 이미지(좌)와 동영상(우)	65
[그림 23] 각 기관의 온라인상의 대응 시작 시기	71

[그림 24] 학술 기관이 전담하는 안(제1안)	82
[그림 25] 대응 활동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안(제2안)	83
[그림 26] 대응분야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안(제3안)	83
[그림 27] 정부-학술-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안(제4안)	85

I. 서론

1. 연구 목적

‘동해(東海)’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매우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지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동해’라는 명칭은 주변 국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본해’로 사용되고 있다. 동해의 명칭이 일본해에 비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지명이라는 것은 많은 자료들을 통해 검증된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불리게 된 것은 20세기 전반부터이다. 세계 바다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공식화하기 위해서 1919년에 런던에서 국제수로회의가 개최되었고, 각 국의 바다이름을 등록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1929년에 국제수로국(IHB)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권 상실로 인하여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동해 바다의 이름은 일본이 제시한 ‘Japan Sea’로 수록되었다. 그 결과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동해라는 명칭 대신 일본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다.¹⁾ 이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는 일본해 지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해 지명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해 지명 표기에 대한 시정 요청 작업과 학문적인 연구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²⁾

지명은 지표의 일부를 지칭하는 언어로, 지역의 기후나 지형, 위치 등

1) 이기석, 1998, “동해 지리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제4호, 대한지리학회, pp.549~550.

2)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90.

을 나타내는 자연적 특성과 거주민들의 생활방식이나 의식구조, 전통문화, 신앙과 같은 인문적 특성에 의해 생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³⁾ 다시 말하면 지명은 지역의 특성 및 역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주며, 그 지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동해’ 지명은 ‘대륙의 동쪽에 있는 바다’를 의미하며, 역사적으로 나라를 상징하는 별칭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⁴⁾ 동해 지명이 일본해로 불리게 되는 변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때 일본에 주권을 빼앗겼다는 역사적 사실을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동해 지명은 한국의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국가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해’ 지명은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로 명명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간의 분쟁, 국제 사회의 논쟁이 되고 있다. 이는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 온라인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한국이나 일본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해보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Sea of Japan’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동해 바다를 일본과 한국의 분쟁지역으로 설명하며 “일본해인가, 동해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전 세계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의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상의 지명 표기는 오프라인 지명과는 다른 측면의 중요성을 갖는다. 온라인 지명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온라인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확산 속도가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는 것이다.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약 9억 8,038만 명이며,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⁵⁾ 인터넷은 동시에 여

3) 강길부, 1997, 땅이름 국토사랑, 집문당, pp.17~21.

4) 이상태, 1995, “역사 문헌상의 동해 표기에 대하여”, 사학연구 제50호, 한국사학회, pp.473~486.

5)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2007 한국인터넷백서, p.169.

러 명이 접속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갖춰진 곳으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상의 정보는 디지털화된 정보로서, 정보의 생산, 저장, 유통 과정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⁶⁾ 노트북,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IT 기기의 발달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상까지 정보화시켜 인터넷에 업로드된다. 개인 블로그나 UCC 동영상 사이트, 각종 포털사이트 등 정보 공유사이트의 발달은 기업, 조직, 개인 등이 생산한 정보를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정보의 왜곡과 왜곡된 정보의 수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번 생산된 자료는 내용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복사 및 압축 과정을 거쳐, 자료의 손상이나 변형이 없이 원본 형태 그대로 사용된다. 따라서 부정확한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위험성이 있다. 또한 출처 없이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원 자료를 찾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연계성이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은 물리적 공간의 사회구조와 의식을 반영한다. IT 기술이 발달하고 온라인 장비가 잘 갖춰진 국가는 자국에 유리한 정보의 생성·유통으로 온라인상의 국제적 정치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상의 불의·부당함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오프라인의 집단행동으로 발전시키기도 한다.⁷⁾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볼 때,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의 특징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해 지명은 이미 오프라인의 현실이 반영되어 동해 지명 대신 일본해로 표기되는 경우

6) 김은규·이정아, 2006,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문화산업: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이해, KT문화재단, pp.18~19.

7) 정책홍보혁신포럼, 2005, 이젠 정책 e 홍보다-온라인 정책홍보 혁신매뉴얼, p.11.

가 많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정보는 온라인 정보를 생성하는 국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로 전파된다. 이 단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는 정보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각 국의 입장에 따른 디지털 정보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인터넷 상에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많이 제작하여 유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입장이 실린 정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재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는 온라인상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싸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 문제가 단순한 정보 왜곡의 문제가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연계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의 표기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동해 지명 오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학술·민간 차원의 활동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온라인상의 지명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동해 바다의 올바른 지명의 확정과 사용을 촉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

본 연구는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의 현황의 대략적인 조사’, ‘관련 기관의 대응 활동 조사 및 분석’, ‘새로운 대응방안 제시’라는 세 개의 큰 주제로 구성하였다. 첫째,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동해 지명과 관련하여 발간된 연구 논문 및 단행본을 검토하였다.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통해서 동해표기의 역사와 동해 지명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차적으로 해외의 정부, 대학, 언론기관, 지도제작사이트 등 100개의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동해 표기 현황을 간단히 조사하였다. 그리고 2007년 1월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검토하였던 20개의 웹사이트⁸⁾를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변화 내용을 조사하고 해외 통신사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20개의 웹사이트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정보 전달의 중심이 되는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로서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어 우선적인 시정이 필요한 웹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별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서 공공부문(정부기관)과 민간부문(비정부기구), 공익부문(비영리조직)과 상업부문(영리조직)을 조화시켰다. 언론방송, 교육/출판/학문/지식,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부문의 웹사이트와 함께 지역별·언어권별 다각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웹사이트와 전문 자료와 지도를 생산하는 지도 제작 및 지도포털 사이트를 포함하여 선정한 것이다.

둘째, ‘관련 기관의 대응활동 조사 및 분석’을 위해서 우선 관련 기관을 소속에 따라 국가·학술·민간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국가 차원으로 외교통상부와 해외문화홍보원,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를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학술 차원으로 동해연구회와 동해포럼,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을 선정하였다. 민간 차원으로는 오류시정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경덕 홍보전문가의 웹사이트 ‘다음 세대를 위해’를 선정하였다. 관련 기관들의 동해 지명에 대한 활동 내용과 대응방법, 연구 및 활동성과에 대해서 조사·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기관 및 단체들의 온라인상의 활동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오프라인상의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기

8) 동북아역사재단, 2007, 동해독도 온라인 표기 오류시정 연구용역 보고서

관에서 발행하는 보도 자료 및 홍보물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동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활동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새로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앞서 조사하고 분석한 대응 기관의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현재의 대응방법에서 미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선행연구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분쟁으로 갈등을 겪는 나라들이 있다. 여러 지역의 갈등과 분쟁은 대체로 인종적·민족적·종교적·정치적인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하게 된다.⁹⁾ 영토분쟁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사연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도, 간도, 녹둔도 등의 영토 문제를 역사적 측면, 정책(행정)적 측면, 국제법적 측면에서 다루었다. 독도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영토문제에 대한 해당 국가의 정책, 당사국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영토분쟁,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문제, 일본과 중국의 동중국해 문제와 같이 국제 사례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지명에 관한 분쟁은 영토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해 지명에 관한 분쟁 역시 큰 범주에서 영토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동해 지명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연구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학계나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

9) 이정록·구동희, 2005, 세계의 분쟁지역, 푸른길; 서울, pp.14~15.

은 199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¹⁰⁾ 우리나라는 1991년에 UN에 가입한 이후 1992년 제6차 UN지명표준화회의(UNCSGN: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s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에 참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본해 명칭의 부당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동해 지명 문제는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로 확대되었다. 이 후 지리학계의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군사학회, 서울국제법연구원, 신아시아연구소, 한국경영사학회, 한국사연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동해 지명에 관한 연구물들이 나왔다. 그러나 동해 지명에 대한 연구가 아닌, 영해로서의 동해에 포커스를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동해 지명 자체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지리학은 지표상의 다양한 현상들과 그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¹¹⁾으로, 인간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한다. 따라서 지리학에서는 동해 지명 표기에 대한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동해 지명에 대한 역사·지리적 지식과 정보에 관한 연구물¹²⁾은 1992년 지리학을 대표하는 학술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지리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 이찬¹³⁾은 동해 지명의 인식과정과 역사를 고지도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임덕순, 한상복¹⁴⁾은 정치지리학적·해양학적 측면에

10) 이기석, 1998, 앞의 논문, p.541.

11) 이희연, 1991, 지리학사, 법문사, p.4.

12) 이 찬, 1992, “한국의 고지도에서 본 동해”, 지리학 제27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pp.263~267.

임덕순, 1992, “정치지리학적 시각에서 본 동해지명”, 지리학 제27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pp.268~271.

한상복, 1992, “해양학적 측면에서 본 동해의 고유명칭”, 지리학 제27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pp.272~277.

이기석, 1992, “발견시대 전후 동해의 인식”, 지리학 제27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pp.278~283.

13) 이 찬, 1992, 앞의 논문.

14) 임덕순, 1992, 앞의 논문.

한상복, 1992, 앞의 논문.

서 일본해 지명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靑海 (Blue Sea)’, ‘Orient Sea’라는 지명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대한지리학회와 동해 지명에 관한 심포지움은 동해 지명에 대한 역사·지리적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동해 지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태, 양보경¹⁵⁾은 고지도를 통한 동해 지명의 역사성에 대한 연구, 이기석, 박윤식¹⁶⁾은 국제기구와 관련하여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동해 명칭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손용택·한관중¹⁷⁾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 관련 지명의 왜곡에 대한 연구물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서정철¹⁸⁾은 일찍이 프랑스 문헌에 동해에 관한 불어 표기가 동해 또는 한국해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계기로 관련 문헌과 고지도 등을 통해 동해 지명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신¹⁹⁾은 동해

-
- 15) 이상태, 2004,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157~164.
 양보경, 2004, 앞의 논문, pp.89~111.
- 16) 이기석, 2004, 지리학 연구와 국제기구-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제1호, 대한지리학회, pp.1~12.
 박윤식, 2007, IHO총회, ‘동해’표기 논의-일본해 표기 삭제한 해도집 발간 제안-, 통일한국 통권 제282호, 평화문제연구소, p.96.
- 17) 손용택·한관중, 2006, 한반도 주변 주요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지명 왜곡과 오류실태-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지리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45권 4호, pp.83~106.
- 18) 서정철, 1981, 역사적으로 본 서구고지도에 나타난 한국, 지리학 제24호, pp.39~53.
 _____, 1995,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일본해 명칭에 대하여, 동해 지명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논문발표 I, (사)동해연구회, pp.1~18.
 _____, 1997, 고지도의 동해-일본해 명칭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동해지명표준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논문발표 I, (사)동해연구회, pp.36~47.
 _____, 2001,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한국해 표기문제, 제7회 동해 지명과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학술 세미나, (사) 동해연구회, pp.1~40.
 _____, 2004, 고지도에 대한 통계를 통하여 살펴본 ‘동해’ 표기의 문제, 동해명칭의 국제적 통용을 위한 전략개발, (사) 동해연구회, pp.40~58.
- 19) 김 신, 2001, 국제수로기기와 동해 표기에 대한 연구, 제7회 동해지명과 바다 명칭에 대한 국제학술 세미나, (사)동해연구회, pp.133~162.
 _____, 2004, 국제수로기기와 동해 표기에 대한 연구, 동해명칭의 국제적 통용을 위한 전략개발, (사)동해연구회, pp.82~90.
 _____, 1998, 동해의 역사지리학적 연구, 동해 지명과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사)동해연구회, pp.145~164.

지명과 국제수로기구에 관한 여러 논문 및 단행본을 발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동해 지명에 대해 알리고 있다.

동해연구회는 1994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단체로 동해 지명에 대한 연구 활동의 중심점이 되고 있다. 국제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²⁰⁾하여 국내외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 동해 지명에 관한 연구물을 발표하고 있으며, 해외 지명 전문가들과 함께 동해 지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2007년 13번째 세미나를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에서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지명 전문가와 함께 바다 명칭에 대한 국제표준화 및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 1995년 동해 지명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1996년 동해 지명에 관한 국제학술워크샵, 1997년 동해지명 표준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1998년 동해연구회 학술발표대회, 1999년 동해 지명과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등 해마다 동해 지명과 관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II.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 표기 분석

1. 100개 온라인사이트의 동해 표기 현황

세계 각 국에서 제작되는 온라인 사이트는 등록된 도메인 주소를 통해서 그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웹호스팅 국제센터의 자료²¹⁾에 따르면, 2008년 3월 18일 현재 등록된 도메인 수는 약 9천9백만 개로, 2008년 2월 11일부터 일주일동안 평균 36만 개의 도메인이 새로 등록되었다. 이는 하루에 평균 5천2백만여 개의 웹사이트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웹사이트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세와 하루에 수 만개의 웹사이트가 생기고 사라지는 등 온라인 공간은 변화가 많고 규모가 방대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언론사, 지도제작사 등 온라인상에서 정보의 공급력이 크고 공신력이 있는 웹사이트 100개를 선정하여 동해 지명 표기의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다. 조사한 100개의 웹사이트의 63%는 주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사이트로 웹호스팅 국제센터의 도메인등록 순위의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조사한 사이트의 약 90%가 상위 50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10%는 50위권 밖에 속한다. 100위권 내에 들지 않

21) 웹호스팅 국제센터(<http://www.webhosting.info/>)

※ Total Domains Worldwide, Gain, Loss and Net Gain/Loss(2008.2.11~2008.3.17)

Weeks	Total Domains	Gain	Loss	Net
03/17/2008	99,172,724	2,741,635	2,087,238	654,397
03/10/2008	98,518,327	2,380,232	1,844,182	536,050
03/03/2008	97,982,277	2,036,134	1,659,161	376,973
02/25/2008	97,605,304	2,228,021	2,025,746	202,275
02/18/2008	97,403,029	2,236,110	2,252,862	16,752
02/11/2008	97,419,781	2,489,519	2,063,539	425,980
일주일평균	98,016,907	2,351,942	1,988,788	368,738
하루 평균	14,002,415	335,992	284,113	52,677

출처: http://www.webhosting.info/domains/global_stats/total_domains/

는 국가의 웹사이트도 일부 포함시켰다. 또한 언어권 및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프가니스탄, 이집트 등의 아랍권 국가와 칠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국가의 웹사이트는 도메인 등록 순위는 낮지만 포함시켰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메인 등록 순위 14위와 9위에 해당하는 한국과 일본의 웹사이트는 제외시켰다.

각 웹사이트를 검색할 경우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영어버전이 있는 경우에는 East Sea, Sea of Japan, Korea, Japan 등의 단어로 검색하였으며, 영어버전이 없는 경우는 Mer du Japon, Mar de(del) Japón, Japanische Meer, Ostmeer, 日本海, 東海 등 해당국의 언어로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중 관련성이 높고, 우선적으로 검색 되는 페이지의 내용을 검색 결과로 선택하였다. 각 사이트의 검색 결과 관련된 내용이 검색되지 않거나, 검색 기능이 없는 경우와 같이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100개의 웹사이트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일차적으로 표기 형태에 따라 단독표기, 병기, 복합적 표기, 미표기, 기타,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단독표기는 지명을 단독으로 표기한 경우로 표에는 ‘단’으로 표시하였다. 병기는 동해와 일본해 두 개의 지명을 같이 표기한 경우로 ‘병’으로 표시하였다. 복합적 표기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여러 유형의 표기 형태를 갖는 경우이며 ‘복합’으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검색된 결과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바다 지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미표기’로, 위의 형태와 다르게 표기한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웹사이트 내에서 동해 지명과 관련된 내용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는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단독표기와 병기의 경우는 이차적으로 우선 사용한 지명에 따라 분류하여 표기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동해와 일본해의 영문 첫 자를 따라 일

차 분류 뒤에 ‘E’와 ‘J’로 단독 표기 또는 우선 표기한 지명을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표에 ‘단-E’로 표시된 것은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경우(East Sea)이며, ‘병-J’로 표시한 경우는 일본해를 우선으로 표기하고 동해(Sea of Japan/East Sea)를 표기한 것이다.

검색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9> 온라인상의 주요 국가 웹사이트의 동해 표기

No.	국가	분류	기관명	표기형태
1	미국	언론기관	Washington Post(WP)	없음
2	미국	언론기관	New York Times	단-J
3	미국	언론기관	Los Angeles Times	단-J
4	미국	언론기관	The Wall Street Journals	없음
5	미국	언론기관	United Press International(UPI)	기타
6	미국	정부기관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NOAA)	단-J
7	미국	정부기관	국방부	단-J
8	미국	정부기관	농림부	단-J
9	미국	정부기관	육군	단-J
10	미국	정부기관	에너지정보국	단-J
11	미국	정부기관	US Board on Geographic Names(USBGN)	단-J
12	미국	정부기관	CIA World Fact Book	단-J
13	미국	지도제작사	National Geographic	단-J
14	미국	지도제작사	ESRI	단-J
15	미국	지도제작사	Illustrator Maps	병-J
16	미국	국제기구	유엔	복합(단-J, 병-E)
17	영국	언론기관	Financial Times	단-J
18	영국	언론기관	BBC	단-J
19	영국	언론기관	The Times	단-J
20	영국	언론기관	Guardian	단-J
21	영국	언론기관	The Times	단-J
22	영국	정부기관	영국지명위원회(PCGN)	없음
23	영국	정부기관	영국 국제개발부	없음
24	캐나다	정부기관	외교통상부	없음
25	캐나다	정부기관	재향군인부	단-J
26	캐나다	언론기관	CBC 라디오 인터넷 사이트	단-J
27	캐나다	국제기구	북서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복합(단-E, 단-J)
28	캐나다	정부기관	외교통상부의 여행정보 사이트	복합(병-J, 병-E)
29	중국	언론기관	신화사	복합(병-E, 단-J)

No.	국가	분류	기관명	표기형태
30	중국	언론기관	인민일보	단-J
31	중국	언론기관	교육부	없음
32	중국	정부기관	여행국	없음
33	중국	정부기관	사회과학원	없음
34	중국	정부기관	과학기술부	없음
35	홍콩	언론기관	홍콩문화보	복합(단-J, 병-E)
36	독일	언론기관	Süddeutsche Zeitung (SZ)	단-J
37	독일	정부기관	외무부	없음
38	독일	정부기관	국제협력지원단(교육부산하)	없음
39	독일	언론기관	Der Spiegel	단-J
40	독일	학술재단	학술정치재단	없음
41	독일	언론기관	Die Welt	병-J
42	독일	언론기관	Der Tagesspiegel	없음
43	독일	언론기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	없음
44	독일	백과사전	http://de.wikipedia.org	단-J
45	독일	백과사전	Die Zeit	단-J
46	스위스	언론기관	Neue Zürcher Zeitung (NZZ)	복합(단-E, 단-J)
47	스위스	정부기관	이민성	없음
48	스위스	정부기관	스위스 외교부	없음
49	프랑스	언론기관	AFP	없음
50	프랑스	언론기관	르몽드	없음
51	프랑스	언론기관	르피가로	없음
52	프랑스	언론기관	리베라씨옹	단-J
53	프랑스	언론기관	라트리분	없음
54	프랑스	언론기관	프랑스24	복합(병-J, 단-J)
55	프랑스	언론기관	프랑스 2	단-J
56	프랑스	언론기관	텔레 1	단-J
57	프랑스	언론기관	라디오 프랑스 인터네셔널	없음
58	프랑스	정부기관	외무부	단-J
59	프랑스	정부기관	Élysée Palace(엘리제궁)	단-J
60	프랑스	정부기관	Senat(프랑스국회)	단-J
61	프랑스	정부기관	해군성 수로국	단-J
62	프랑스	정부기관	외교부(아주국)	단-J
63	벨기에	언론기관	르수아르	없음
64	벨기에	언론기관	라 리브르 벨지크	단-J
65	벨기에	언론기관	레코	없음
66	멕시코	언론기관	엘우니베르살	단-J
67	멕시코	정부기관	스페인 상원	없음
68	멕시코	정부기관	무역진흥사이트	없음
69	칠레	정부기관	프로칠레	없음
70	칠레	언론기관	라세군다 신문	단-J
71	쿠바	정부기관	국가홍보처	없음
72	아르헨티나	언론기관	라나시온 신문	없음

No.	국가	분류	기관명	표기형태
73	아르헨티나	언론기관	끌라린 신문	없음
74	과테말라	언론기관	쁘렌시리브레 신문	없음
75	도미니카	언론기관	오이 신문	없음
76	스페인	언론기관	El Pais	단-J
77	스페인	언론기관	El mundo	단-J
78	스페인	언론기관	ABC	단-J
79	인도	정부기관	과기부	단-J
80	인도	지도제공 사이트	Compare Infobase(Maps of World)	복합 (단-J, 미표기)
81	인도	웹사이트	Uratlass.com	없음
82	이탈리아	국제기구	FAO	단-J
83	이탈리아	정부기관	이탈리아 외교부	없음
84	오스트레일리아	지도정보 제공	지도국가정보 제공(atlapedia)	복합 (단-J, 미표기)
85	덴마크	정부기관	외교부	복합(병-E, 단-E)
86	뉴질랜드	정부기관	외교통상부	병-E
87	오스트리아	정부기관	오스트리아 외교부	없음
88	오스트리아	언론기관	kurier	없음
89	그리스	정부기관	그리스 외교부	없음
90	아일랜드	정부기관	아일랜드 외교부, Ireland Aid	없음
91	네덜란드	국제기구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사무국	없음
92	네덜란드	정부기관	네덜란드 외교부	없음
93	노르웨이	정부기관	노르웨이 외교부	없음
94	포르투갈	정부기관	포르투갈 외교부	없음
95	스웨덴	정부기관	스웨덴 외교부	없음
96	카타르	언론기관	Al Jazeera	단-J
97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언론기관	Khaleej Times	단-J
98	이스라엘	정부기관	이스라엘정부	없음
99	아프가니스탄	정부기관	아프가니스탄정부	없음
100	이집트	정부기관	이집트외교부	없음

※ ‘단-E’: 동해 단독표기(East Sea),

‘단-J’: 일본해 단독표기(Sea of Japan),

‘병-E’: 동해(일본해) 병기(East Sea(Sea of Japan)),

‘병-J’: 일본해(동해) 병기(Sea of Japan(East Sea)),

‘복합’: 여러 형태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형태임.

※ 기타 : ‘두 나라 사이의 바다’라고 중립적으로 표현함.

100개의 웹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총 41개의 웹사이트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정부기관과 언론기관이 대부분이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국제수로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중국과 멕시코, 칠레, 스페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언론기관도 조사 대상 수는 많지 않았으나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었다. 중국은 동중국해를 동해라고 부르기 때문에 지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동해를 일본해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 외의 중남미 국가와 중동 국가의 경우는 동해 지명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동해 지명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동해를 우선적으로 표기한 경우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가 있었고, 일본해를 우선으로 병기한 경우는 미국의 지도제작사인 월드아틀라스와 독일의 언론기관인 Die Welt 웹사이트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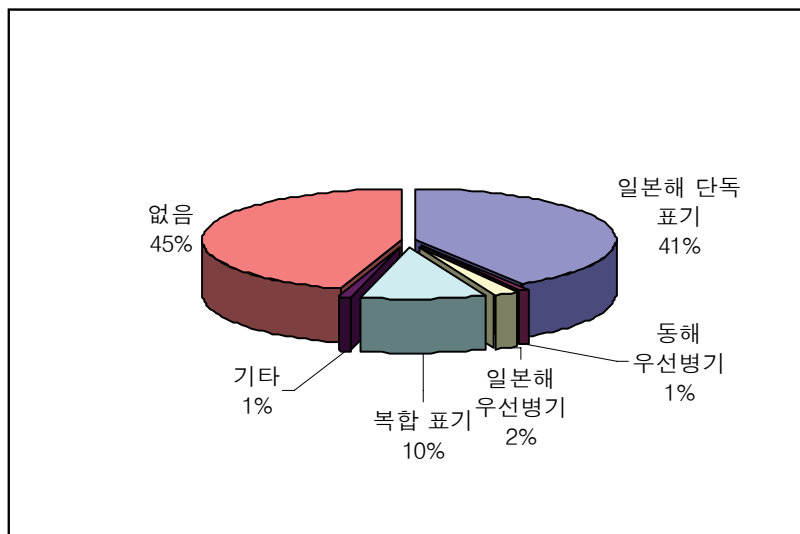
복합적 표기 형태는 국제기구인 북서태평양해양과학기구와 유엔이 있으며, 프랑스와 스위스, 중국, 홍콩의 언론기관, 캐나다의 여행정보 사이트, 인도의 지도제공사이트 등 총 10개의 웹사이트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복합적 표기 형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해 단독표기와 일본해 단독표기(단-E, 단-J), 동해 우선 표기와 일본해 우선 표기(병-E, 병-J)와 같이 동등하게 처리한 웹사이트가 3개(북서태평양해양과학기구, 캐나다 외교통상부 여행정보 사이트, 스위스 언론사 NZZ)가 있었다. 일본해 단독표기를 중심으로 하고 동시에 동해 우선 병기, 일본해 우선 병기, 미표기하는 경우와 같이 일본해를 우선적으로 표기한 웹사이트는 6개(유엔국제기구, 중국 신화사, 홍콩문화보, 프랑스24, 인도의 지도제공사이트,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도제공 사이트)가 있었고,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하거나 우선으로 병기하는 웹사이트가 1개(덴마크 외교부) 있었다.

기타로 표시한 미국의 언론기관 United Press International은 검색된

기사에서 동해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라고 중립적으로 표현하며, 한국에서는 동해,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표기한다고 기록하였다. 그 외의 동해 관련 기사는 검색되지 않았다.

<표 10 > 100개 웹사이트의 동해 표기 검색 결과

구분	일본해 단독 표기	동해 우선 병기	일본해 우선 병기	복합 표기	기타	없음
단위 (개, %)	41	1	2	10	1	45



[그림 1] 100개 웹사이트의 동해 지명 표기 형태 비율

2. 20개 온라인사이트의 동해 표기 현황

1) 선정 기준 및 조사 방법

100개의 온라인웹사이트를 통해서 동해 지명의 대략적인 표기 내용을 파악하였다면, 이 장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보고서에 제시된 20개 중점관

리대상사이트의 동해 표기 내용을 정밀 조사하여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일부 웹사이트의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20개의 웹사이트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는 사이트로 우선적으로 시정을 요청해야 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지역별·언어권별 다각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사이트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셋째, 부문별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공공부문(정부기관)과 민간부문(비정부기구), 공익부문(비영리조직)과 상업부문(영리조직)을 조화시켰다. 언론방송, 교육/출판/학문/지식, 국제기구 등 사회의 다양한 부문별 특성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를 포함시켰다. 넷째, 전문 자료와 지도를 생산하는 지도 제작 및 지도포털 사이트를 선정하였다.²²⁾

조사방법은 일차적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20개 사이트를 접속하여 지명 표기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이차적으로 2008년 1월 이후 추가 검색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였다. 각 웹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Korea, Japan, East Sea, Sea of Japan 등 관련 단어로 검색하여 지명 표기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았다. 문서, 이미지, 관련 사이트 등 다양한 형식의 검색 결과 중 관련성이 높으며, 가장 상위에 나타나는 항목을 검색 결과로 선택하였다. 해당 페이지의 기사와 지도에서 동해 바다의 지명이 어떻게 표기 되어있는지 조사하였으며, 하나의 웹페이지에서 기사와 지도의 표기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도의 표기 내용을 우선으로 하여 결과를 작성하였다. 일반 문서자료보다 시각자료인 지도가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되고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의 경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로 한정하였고, 한국, 일본, 동해, 일본해와 관련된 기사를 추려내어 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22) 동북아역사재단, 2007, 동해독도 온라인 표기 오류시정 연구용역 보고서, p.38.

2) 조사 결과

20개 웹사이트의 동해표기 내용을 정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개 중점관리대상사이트 중 두 개의 사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웹사이트에서 여전히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나머지 18개의 웹사이트의 특성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 및 통신사 등이 있다. 특히, 미국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사용하는 The World FactBook²³⁾의 내용은 2008년 1월에 각 국가의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하였지만, 여전히 ‘Sea of Japan’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을 반영할 의사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부 및 관련 대응 기관에서 일본해 표기를 시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내용은 미비하다고 보인다.

둘째, 미국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www.wikipedia.org)과 독일의 벨트아틀라스(www.welt-atlas.de) 2개의 웹사이트에서 동해 표기 내용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영어판)의 경우는 ‘korea’로 검색할 경우 2007년에는 ‘East Sea(Sea of Japan)’으로 동해 우선의 병기 형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2008년 조사에서는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나 대한해협과 같은 바다의 지명을 전혀 표기하지 않는 형태로 바꾸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변화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긍정적인 형태로 변한 경우로 독일의 벨트아틀라스(www.welt-atlas.de) 웹사이트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2007년에 조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지도와 북한 지도에 동해 단독 표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더

23) The World FactBook(<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발행하는 연간 간행물로 정부부처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 266개국의 지리적 위치, 인구, 언어 등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현재 2008년 개정판도 온라인상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나아가서 러시아 지도에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던 것을 동해 우선병기 형태인 ‘East Sea(Sea of Japan)’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도에도 ‘East Sea(Sea of Japan)’으로 병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통신사 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동해 지명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확인하였다. 외국인이 작성한 기사는 물론, 한국 기자가 작성하여 송출한 기사에서도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였다. 블룸버그통신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자연 등을 다루는 34건의 기사 모두에서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였다. 다만, 그 중 한 건의 기사에서 일본해는 한국에서 동해로 불리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었다. 로이터통신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자연·사회·외교 등을 다룬 기사가 모두 35건이었으며, 이 중 두 건의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사에서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였다. 두 건의 기사에는 ‘East Sea(Sea of Japan)’으로 동해 우선표기 형태를 띠었으며, 한 건은 한국 기자가, 또 한건은 일본인 기자가 작성한 것이다. 반면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기사의 67%가 일본인이 작성하여 일본에서 전송된 기사로 파악되었다.

이는 한국내의 국민들에게 동해 지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담당자와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에도 동해 지명을 알리고 동해 지명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할 것이다.

3) 주요 웹사이트의 사례 분석

20개의 웹사이트 중 위키피디아와 벨트아틀라스 두 개의 웹사이트에서 2007년 조사 결과에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또한 텍사스대학도서관

웹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지도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표기 형태의 변화는 없었지만,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의 경우 기사, 기사의 내용, 발송 국가 등 관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백과사전(www.wikipedia.org)은 네티즌과 함께 만들어가는 개방형 웹사이트로서, 현재 2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위키피디아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의 경우는 동해 표기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첫째, 위키피디아 영어판의 검색란에서 ‘korea’로 검색할 경우 2007년에는 ‘East Sea(Sea of Japan)’으로 표기된 지도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에 검색한 결과 동일한 지도에 동해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의 지명을 모두 공란으로 비워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영어판)의 변경 내용

구 분	검색어	2007년 검색결과	2008년 검색결과	비 고
Wikipedia(영어) http://en.wikipedia.org	Sea of Japan	Sea of Japan (East Sea)	Sea of Japan (East Sea)	동일
	Korea(한반도)	East Sea (Sea of Japan)	미표기	변경
	Japan	Sea of Japan	Sea of Japan	동일
	East Sea	-	Sea of Japan	



2007년 검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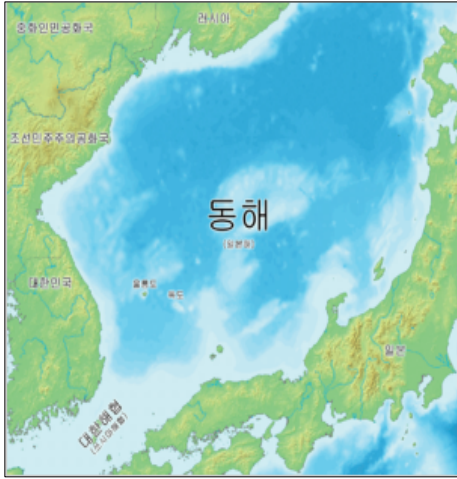
2008년 검색 결과

[그림 2]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영어판)의 'Korea' 검색 결과

※ 左: <http://en.wikipedia.org/wiki/Image:MapofKorea.png>

※ 右: http://en.wikipedia.org/wiki/Image:Map_of_korea.png

둘째,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한국어판에는 '동해'와 '일본'으로 검색할 경우 '동해(일본해)'로 동해 우선 병기형태와 동해 단독 표기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판에는 '동해'로 검색할 경우는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한국'으로 검색할 경우는 미표기 형태, '일본'이나 '일본해'로 검색할 경우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이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주로 보게 되는 한국어판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일본인들이 주로 보는 일본어판에는 일본인들의 주장에 따라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판: ‘동해(일본해)’ 표기



일본어판: ‘일본해’ 단독 표기

[그림 3] 위키피디아 ‘동해’ 검색 결과

<표 12>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동해 표기

구 분	검색어	2007년 검색결과	2008년 검색결과	비 고
Wikipedia(한국어) http://en.wikipedia.org	동해	-	East Sea (Sea of Japan)	
	한국	-	미표기	
	일본	-	East Sea	
	일본해	-	East Sea	
Wikipedia(일본어) http://jp.wikipedia.org	東海	-	기타	
	韓國	-	미표기	
	日本	-	Sea of Japan	
Wikipedia(프랑스어) http://fr.wikipedia.org	日本海	-	Sea of Japan	
	Coree	Sea of Japan (East Sea)	Sea of Japan (East Sea)	동일
	Japon	Sea of Japan	Sea of Japan	동일
	Mer du Japon	Sea of Japan	Sea of Japan	동일
Wikipedia(영어) http://en.wikipedia.org	Mer de l'est	-	Sea of Japan	
	Sea of Japan	Sea of Japan (East Sea)	Sea of Japan (East Sea)	동일
	Korea(한반도)	East Sea (Sea of Japan)	미표기	변경
	Japan	Sea of Japan	Sea of Japan	동일
	East Sea	-	Sea of Japan	

※ ‘-’은 2007년 조사 내용이 없는 것임.

※ 기타: 일본의 지역 구분 단위인 동해 지방에 대한 설명이 나타남.

셋째, 한국어판에서 ‘일본해’로 검색하면 동해 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어, 검색 결과로 동해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판에서 동해를 검색하면, 일본해 페이지로 링크되지 않고, 일본의 지역을 구분하는 하나의 단위인 동해 지방을 설명하는 전혀 다른 페이지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대등한 검색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국어판에 일본해 페이지 링크가 삭제되거나, 일본어판에 일본해 페이지에 동해페이지가 링크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 외, 프랑스어 버전의 경우도 ‘Coree’의 검색 결과는 일본해 우선 병기형태로 나타나지만, ‘Japon’으로 검색할 경우 ‘Sea of Japan’으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 이 역시 한국과 대등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해라는 지명 자체를 알리지 않으려는 일본의 입장이 반영되어 의도적으로 검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2) 벨트아틀라스

벨트아틀라스(www.welt-atlas.de)는 지도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독일의 웹사이트로서 2007년 조사할 당시에 동해 지명을 ‘Ostmeer’(동해)로 단독 표기하였다. 당시 북한과 남한 모두 동해로 단독 표기하였으나, 러시아 지도에서는 ‘Sea of Japan’으로 일본해 단독 표기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의 검색 결과 러시아 지도의 동해 표기가 ‘East Sea(Sea of Japan)’으로 바뀌었다. 아시아지도 역시 동해 우선 병기 형태로 표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지도는 검색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독일의 벨트아틀라스는 동해 표기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일본의 입장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검색 결과



2008년 검색 결과

[그림 4] 벨트아틀라스의 러시아 지도 검색 결과

※ 左 :

<http://www.welt-atlas.de/worldatlas/database/map.php?kartenid=0-9017&back=0-9039>

右 : <http://www.welt-atlas.de/datenbank/karten/en/karte-0-9023-en.gif>

<표 13> 벨트아틀라스의 동해 표기 검색 결과

구분	검색어	2007년 검색결과	2008년 검색결과	비고
벨트 아틀라스 http://www.welt-atlas.de	North Korea, South Korea	Ostmeer	Ostmeer	동일
	Japan	미표기	지도 검색 불가능함	변경
	Russia	Sea of Japan	East Sea (Sea of Japan)	변경
	Asia지도	-	East Sea (Sea of Japan)	

※ '-'은 2007년 조사 내용이 없는 것임.

(3) 텍사스대학도서관

텍사스대학도서관 웹사이트(www.lib.utexas.edu)에 다양한 종류의 지도가 등재되어 있다. 2007년에 조사한 지도는 아시아지도 15종, 중국 지도 6종, 한국 지도 31종으로 총 52종의 지도를 검색하였다. 2008년에는 새로

추가된 2종을 포함한 한국 지도 54종과 세계지도 31종, 일본지도 6종을 살펴보았다. 일본 지도는 모두 ‘Sea of Japan’으로 표기된 지도였으며, 세계지도에는 미표기 형태의 지도가 22종 중 9종이 있었다.

새로 추가된 한국 지도 2종의 경우는 모두 동해 지명을 표기하지 않은 지도를 등재하였다. 그러나 새로 등재된 지도는 북한의 광업 및 산업 활동에 관한 주제도와 미사일거리를 나타낸 지도로 대부분 바다 지명을 표시하지 않는 형태의 지도이다. 따라서 동해 지명에 관해 문제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미표기 지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표 14 > 텍사스대학도서관 웹사이트의 지도 검색 결과

사이트 및 사이트 주소	검색어 및 검색지도	2008년 1월 검색 결과	2007년 1월 검색 결과	비고
텍사스대학도서관 www.lib.utexas.edu	World Map	단-J(22) 미표기(9) 총 31종	-	
	Asia Map	단-J(14) 미표기(1) 총 15종	단-J(14) 미표기(1) 총 15종	
	China Map	단-J(1) 미표기(5) 총 6종	단-J(1) 미표기(5) 총 6종	2006년 지도 중 일부를 2007년 지도로 대체
	Korea Map	단-E(3) 단-J(24) 병-E(3) 미표기(3) 총 33종	단-E(2) 단-J(27) 병-E(3) 미표기(1) 총 31종	미표기 지도 추가
	Japan Map	단-J(6) 총 6종	-	
	합 계	총 91종	총 52종	-

(4) 블룸버그통신

블룸버그통신(www.bloomberg.com)은 미국의 뉴스매체로 세계 91개국으로 기사를 전송한다. 이 웹사이트의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기사 중 ‘Sea of Japan’, ‘East Sea’ 지명이 들어간 기사를 모두 검색하였다. 총 34건의 기사가 있었고, 그 중 30건은 ‘Sea of Japan’으로 표기하였고, 4건의 기사는 ‘Japan Sea’으로 표기하여, 결과적으로 34건의 기사 모두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내용을 다루는 한 건의 기사에서 ‘East Sea’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동해 병기의 형태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 중 동해라고 표현한 것을 옮기며 동해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는 것에 불과하다.(자료 1 참고) 따라서 블룸버그통신의 경우 ‘Sea of Japan’과 ‘Japan Se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00%라고 보아도 무관하다.

‘Sea of Japan’으로 표기하고 있는 기사의 작성자와 발송국가를 확인하여 보면, 일본에서 작성된 기사가 3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한국과 영국에서 작성된 기사가 14.7%로 두 번째로 많았다.

기사 내용별로 살펴보면, 북한이 동해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과 일본의 지진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 주가와 관련된 경제 기사를 다루면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외로 발송되는 한국 및 일본 관련 기사에서 동해 지명을 사용하도록 국제부 담당 기자를 비롯한 관계자 및 해외 본사를 대상으로 동해 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촉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1> 2007년 5월 25일 자 블룸버그통신의 관련 기사

North Korea Test-Fires Missiles, South Korea Says (Update5)

By Seonjin Cha and Aaron Sheldrick

May 25 (Bloomberg) -- North Korea test-fired missiles today as part of routine annual exercises, South Korea's military said in a statement. The launches may add to tension across the region.

North Korea fired several short-range missiles this morning toward the **Sea of Japan**, Japan's Kyodo News reported, citing U.S. and Japanese officials it didn't identify. Japan's NHK Television said missiles were fired from North Korea's eastern and western coasts. Japan is located to the east of North Korea.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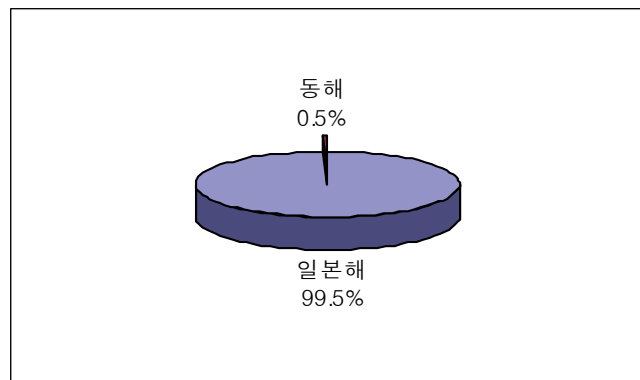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sumes the missile launches were part of routine exercises that North Korea has conducted annually on the West Sea and the **East Sea**," the Joint Chiefs of Staff said in a statement posted on its Web site. **South Korea refers to the Sea of Japan as the East Sea, while the West Sea li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China.**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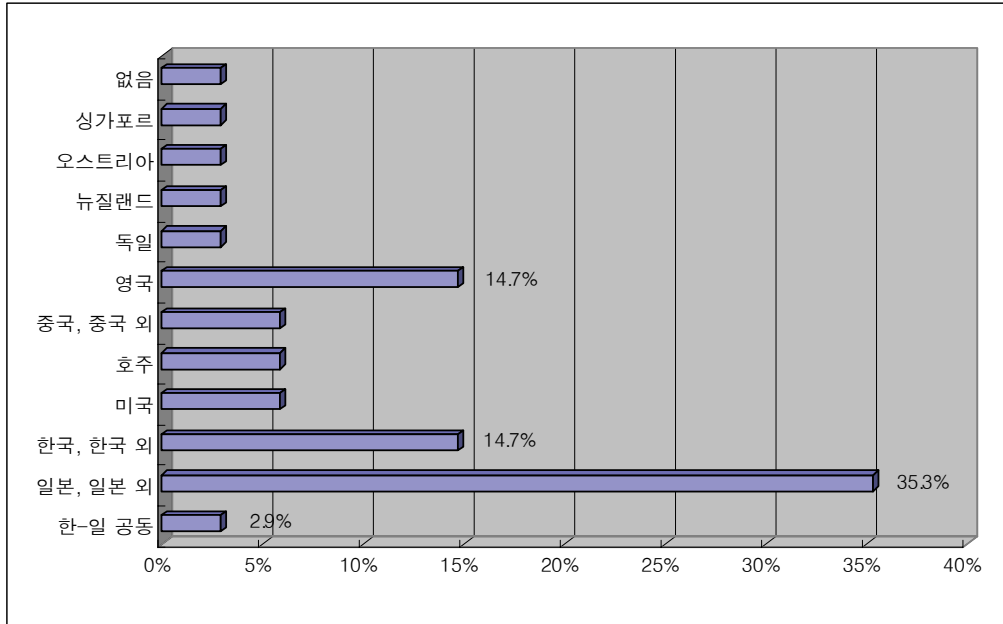
To contact the reporters on this story: Seonjin Cha in Seoul at scha2@bloomberg.net ; Aaron Sheldrick in Tokyo at asheldrick@bloomberg.net .

Last Updated: May 25, 2007 07:39 EDT

※ 출처: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newsarchive&sid=aFOghj8aLIF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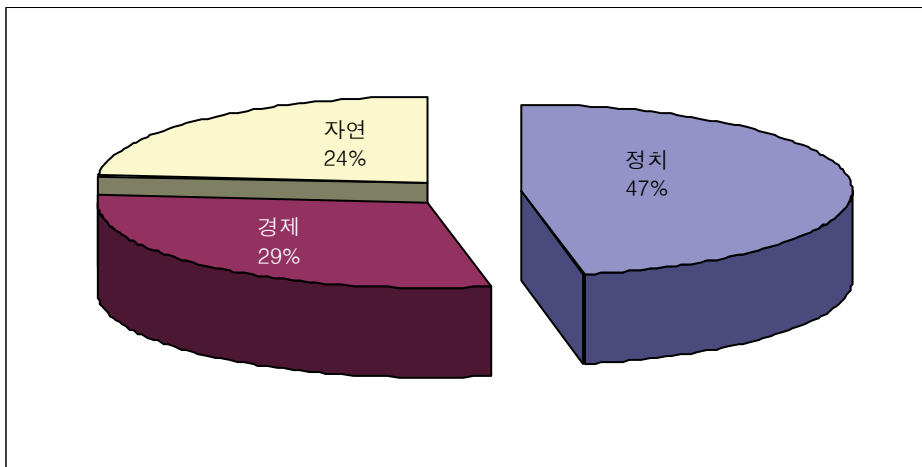


[그림 5] 블룸버그통신 동해 관련 기사의 동해와 일본해의 표기 비율



[그림 6] 블룸버그통신의 일본해 표기 기사의 발송국가 비율

※ ‘외(外)’는 기사를 공동으로 작성한 국가가 있음을 의미함.



[그림 7] 블룸버그통신의 일본해 표기 기사의 내용별 비율

(5) 로이터통신

로이터통신(www.reuters.com)은 세계 5대 통신사 중 하나로 전 세계적인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통신사이다. 블룸버그통신과 같은 방법으로 동해 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의 경우 한국과 일본 관련 기사 내용 중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가 35건 중 33건으로 총 94%에 해당한다. 나머지 6%에 해당하는 2건은 'East Sea(Sea of Japan)'으로 동해 우선병기 형태로 작성되었다. 한 건의 기사는 George Nishiyama라는 일본인 기자가 작성한 것이고, 나머지 한 건의 기사는 발송처가 한국이기는 하지만, 작성한 기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자료 2, 3 참고) 그러나 두 건의 기사 모두 연합뉴스의 동해 우선 표기의 입장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기사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전송된 기사가 67%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18%, 중국과 영국이 각각 6%, 오스트레일리아가 3%를 차지하였다.

동해를 병기한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에서 전송한 기사이며, 두 건 모두 북한 핵미사일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다.

자연환경 및 자연 재해를 다룬 기사가 49%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와 경제 관련 기사가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외교 및 사회 관련 기사가 나머지를 차지하였다.

<자료 2> 2007년 6월 27일 자 로이터통신의 관련 기사

N.Korea allows IAEA team to visit nuclear reactor

Wed Jun 27, 2007 2:39pm EDT

By George Nishiyama

TOKYO (Reuters) - North Korea will allow a team of U.N. nuclear

watchdog officials to visit the Yongbyon reactor it has agreed to shut down under a disarmament-for-aid deal,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id on Wednesday.

(중략)

North Korea may have fired a short-range missile off its east coast on Wednesday,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said. A Seoul Defence Ministry official could not confirm the report.

"We have signs that North Korea fired a short-range missile into the **East Sea(Sea of Japan)** off the coast .. at around 11:30 this morning (0230 GMT), and we're running a close analysis on that," Yonhap quoted a government source as saying.

(생략)

(Additional reporting by Elaine Lies in Tokyo and Manny Mogato in Manila)

※ 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topNews/idUST26744620070627?sp=true>

<자료 3> 2007년 6월 27일 자 로이터통신의 관련 기사

North Korea may have fired missile: report

Wed Jun 27, 2007 6:43am EDT

SEOUL (Reuters) - North Korea may have fired a short-range missile off its east coast on Wednesday,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said.

The possible launch came as U.N. nuclear inspectors visited the reclusive communist state to discuss shutting down a reactor at the heart of its atomic arms programs under a disarmament deal reached in February.

"We have signs that North Korea fired a short-range missile into the **East Sea (Sea of Japan)** off the coast of South Hamgyong province at

around 11:30 this morning (0230 GMT) and we're running a close analysis on that," Yonhap quoted a government source as say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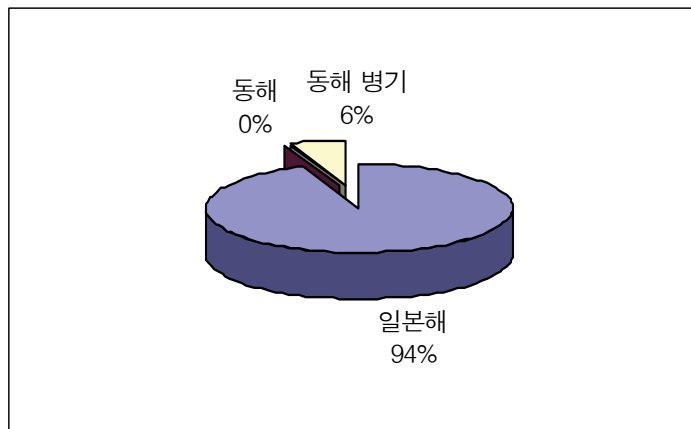
The type of missile was not known but the launch was believed to be part of regular drills, the source said.

The Defense Ministry could not confirm th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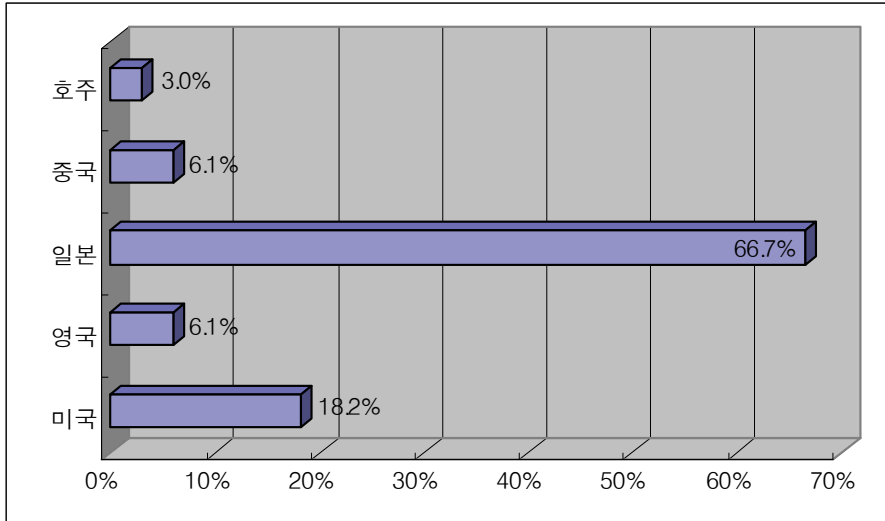
North Korea fired at least two short-range missiles over the past month. Officials in Seoul and one North Korean official played down the launches, saying they were part of regular military drills.

North Korea raised security concerns in July 2006 when it defied international warnings and test-fired a barrage of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its long-range Taepodong-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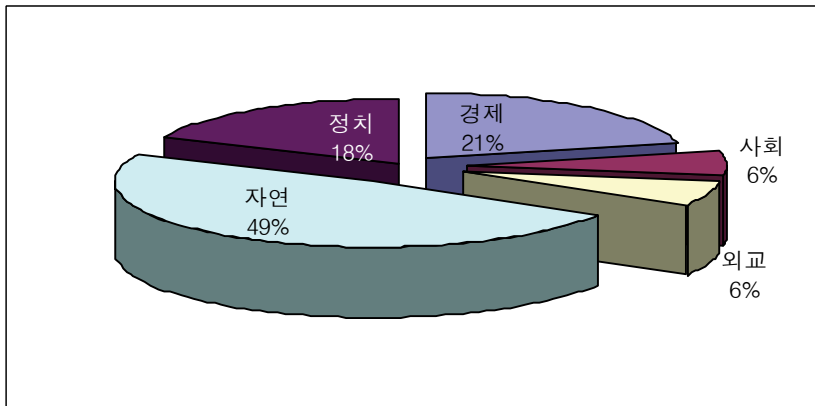
※ 출처: <http://www.reuters.com/article/worldNews/idUSSEO29581020070627>



[그림 8] 로이터통신 동해 관련 기사의 동해와 일본해의 표기 비율



[그림 9] 로이터통신의 일본해 표기 기사의 발송국가 비율



[그림 10] 로이터통신의 일본해 표기 기사의 내용별 비율

3. 동해 지명 표기의 유형별 분석

2008년에 조사한 20개의 웹사이트를 동해 표기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그 특징을 분석해보았다.

동해표기 형태는 일차적으로 표기 형태에 따라서 ‘단독 표기 형태’, ‘우선 표기 형태’, ‘복합적 표기 형태’, ‘미표기 형태’, ‘기타’의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이차적으로 표기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 단독 표기 형태는 ‘동해 단독 표기’와 ‘일본해 단독 표기’로, 두 번째 우선 표기 형태는 ‘동해 우선 표기’와 ‘일본해 우선 표기’로 구분하였다.

<표 15 > 동해 지명 표기의 유형 분류

표기형태	표기 내용	예
단독 표기	동해	East Sea, Ostmeer, Mer de l'est, 東海
	일본해	Sea of Japan, Mer du Japon, Japanisches Meer, 日本海
병기	동해 우선 표기	East Sea(Sea of Japan), East Sea/Sea of Japan
	일본해 우선 표기	Sea of Japan(East Sea), Sea of Japan/East Sea
복합 표기	하나의 웹사이트 내에서 페이지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	하나의 웹사이트 내에서 동해 페이지에는 East Sea로 표기하고 일본해 페이지에는 Sea of Japan으로 표기
미표기	지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
기타	-	검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동해 지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 검색되는 경우 등

표기 형태별 사이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독 표기 형태

(1) 동해 단독 표기

동해 단독 표기 유형은 ‘East Sea’로 표기되는 유형이다. 조사한 20개의

사이트에서 이 유형에 속하는 사이트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는 20개의 조사 대상 사이트가 미시정 오류 사이트를 중심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논쟁의 당사국이 아닌 제 3국의 입장에서 정치적·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알려져 있는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일본해 단독 표기

일본해 단독 표기 유형은 ‘Sea of Japan’으로 표기된다. 주로 미국의 CIA, 국방부, 미의회도서관, 지질조사국, 연방항공우주국, 하버드대학, 구글맵, 블룸버그통신의 웹사이트와 중국, 영국, 프랑스의 웹사이트에서도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였다.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 기관과 보수적 성향이 강한 미국이나 프랑스의 웹사이트의 대부분이 일본해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100개 사이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동중국해를 동해로 부르기 때문에 지명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해를 사용한다.

2) 병기 형태

(1) 동해 우선 표기

동해 우선 표기 유형은 동해를 일본해보다 앞서 표기한 유형으로 ‘East Sea(Sea of Japan)’ 또는 ‘East Sea/Sea of Japan’으로 표기된다.

동해를 우선 표기한 유형은 하나의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하기보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과 같이 복합 유형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국제 사회에서 일본해 지명을 통상적 사용하였으나, 일부 웹사이트에서 동해를 우선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해 지명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해 우선 표기

일본해 우선 표기 유형은 동해보다 일본해 지명을 앞에 표기 하는 것으로 ‘Sea of Japan(East Sea)’ 또는 ‘Sea of Japan/East Sea’로 표기된다.

일본해 우선 표기 유형은 미국의 지도제작 사이트인 월드아틀라스 웹 사이트가 있다. 아시아 지도 및 한국지도, 일본지도에 ‘Sea of Japan(East Sea)’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동해 우선 표기 형태보다 적극적이지는 않으나 동해 지명의 정당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복합적 표기

복합적 표기 형태는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동해 지명과 관련된 페이지마다 다양한 표기 형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 동해 단독 표기, 우선표기 및 미표기의 경우까지 다양한 혼합 양상을 보인다. 20개의 사이트 중 5개의 사이트에서 복합적 표기 형태를 취하고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경우, 동해와 일본해, 일본어로 검색할 경우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으나, 한국어로 검색할 경우에 동해 우선 표기 형태인 ‘East Sea(Sea of Japan)’으로 표기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경우도 위와 비슷한 양상으로 일본과 관련된 페이지에서는 ‘Sea of Japan’으로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였다. 하지만 한국 관련 페이지에서는 ‘Sea of Japan(East Sea)’, ‘East Sea(Sea of Japan)’, ‘미표기’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의 한국어판의 경우는 일본관련 페이지에도 ‘East Sea’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본어판의 한국 관련 페이지에는 동해 지명을 표기하지 않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웹사이트의 경우도 이에 속하는데, 동해로 검색할 경

우에 ‘Sea of Japan’으로 대부분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상의 지도를 검색한 경우에 ‘Sea of Japan(East Sea)’로 표기하고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의 경우 동해 지명에 관한 문제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표기의 변화가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의 지도 제작 및 제공 사이트인 맵퀘스트 역시 복합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일본, 중국, 러시아 지도에서 ‘Sea of Japan’으로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한국지도 및 세계 지도에서는 ‘Sea of Japan(East Sea)’로 일본해 우선 표기 유형을 보인다.

맵퀘스트와 같은 성격을 갖는 독일의 벨트아틀라스 역시 복합 유형에 속하지만, 이 사이트의 경우는 동해 표기가 두드러짐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 관련 지도에는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아시아 지도에는 ‘East Sea(Sea of Japan)’으로 동해를 우선으로 하여 병기하고 있다. 복합적 표기 형태를 띠는 웹사이트는 주로 백과사전이나 지도제공 사이트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4) 미표기

미표기 형태는 바다 지명을 표기하지 않은 형태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의 웹사이트 내에서 일괄적으로 동해 바다의 지명을 삭제하는 경우는 없었고, 복합적 표기 형태를 갖는 웹사이트의 일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이다.

5) 기타

조사한 20개의 사이트 모두 네 개의 형태에 속하여 특별히 기타로 분류되는 사이트는 없었다. 다만 복합적 표기 형태에 속하나, 웹사이트 내의 일부 페이지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경우가 다

음과 같이 있었다.

벨트아틀라스 웹사이트에서는 일본을 검색할 경우 일본에 대한 정보 자체가 검색되지 않는다. 지도상에 ‘Japan’을 클릭하면 일본에 관한 국가 정보가 나타나야 하는데 양식만 있고, 구체적인 정보는 게시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일본어판)에서는 동해라고 검색할 경우 일본 지방의 지역을 구분하는 단위로 동해지방으로 소개하는 페이지가 검색된다. 이 역시 일본해와 동해 지명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사전에 정보를 차단하고자 한 일본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이 두 개의 웹사이트는 동해 지명에 관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게재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써 주변에 링크되어 있는 일본에 관련된 다른 웹사이트로 접근하거나, 일본해에 대한 정보로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7년 조사 결과와 2008년 결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6 > 20개 웹사이트의 동해 표기

유형	사이트 및 사이트 주소	성격	검색어 및 검색지도	2008년 검색 결과	2007년 검색 결과	변경사항	비고
일본해 단독 표기 (12)	CIA https://www.cia.gov	정부 기관	-Korea North -Korea South -Japan -China	단-J	단-J	동일	
	미국 국방부 http://www.state.gov	정부 기관	-Korea North -Korea South -Japan -China	단-J	단-J	동일	
	미의회 도서관 http://www.loc.gov	정부 기관	-Korea North -Korea South -Japan -China	단-J	단-J	동일	
	US Geological Survey(USGS) http://www.usgs.gov	정부 기관	-East Sea -Sea of Japan -Korea North -Korea South -Russia	단-J	단-J	동일	
	NASA 연방항공우주국 http://www.nasa.gov	정부 기관	-Sea of Japan -East sea (검색결과 없음)	단-J	단-J	동일	

유형	사이트 및 사이트 주소	성격	검색어 및 검색지도	2008년 검색 결과	2007년 검색 결과	변경사항	비고
일본해 단독 표기 (12)	2008 베이징올림픽 http://en.beijing2008.cn	정부 기관	-Sea of Japan	단-J	단-J	동일	
	중국외교부 http://www.fmprc.gov.cn	정부 기관	-日本海	단-J	단-J	동일	
	하버드 대학교 http://www.harvard.edu	학계 연구 기관	-East Sea -Sea of Japan	단-J	단-J	동일	
	하버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센터 http://www.ap.harvard.edu	학계 연구 기관	-Regional Map -North Korea -South Korea -Japan	단-J	단-J	동일	
	블룸버그 통신 http://www.bloomberg.com	언론 통신사	-East Sea -Sea of Japan	단-J	단-J	동일	
	로이터 통신 http://www.reuters.com	언론 통신사	-East Sea -Sea of Japan	단-J	단-J	동일	
	러시아일간지 이스베스티야 http://www.izvestia.ru	언론 통신사	-Японского моря (Sea of Japan)	단-J	단-J	동일	
	easyvoyage http://www.easyvoyage.co m	여행 포털	-Sea of Japan -Korea -Japan	단-J	단-J	동일	
일본해 우선 병기 (1)	월드 아틀라스 http://www.worldatlas.com	지도 제작 및 지도 포털	-Asia -Korea -Japan	병-J	병-J	동일	
복합 유형 (7)	텍사스대 학도서관 http://www.lib.utexas.edu	학계 연구 기관	World Map	단-J(22) 미표기(9) 총 31종	-	-	
			Asia Map	단-J(14) 미표기(1) 총 15종	단-J(14) 미표기(1) 총 15종		
			China Map	단-J(1) 미표기(5) 총 6종	단-J(1) 미표기(5) 총 6종		2007년 지도 대체
			Korea Map	단-E(3) 단-J(24) 병-E(3) 미표기(3) 총 33종	단-E(2) 단-J(27) 병-E(3)미 표기(1) 총 31종	변경	미표기 지도 추가
			Japan Map	단-J(6) 총 6종	-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http://search.eb.com	백과 사전	-East Sea -Sea of Japan	병-J	-	-	
			Korea	병-E	병-E	동일	
			Japan	병-J	병-J	동일	
	Wikipedia(프랑스어) http://fr.wikipedia.org	백과 사전	Coree	병-J	병-J	동일	
			Japon	단-J	단-J	동일	
Mer du Japon			단-J	단-J	동일		
Mer de l'est			단-J	-	-	일본해 링크	

유형	사이트 및 사이트 주소	성격	검색어 및 검색지도	2008년 검색 결과	2007년 검색 결과	변경사항	비고
복합 유형 (7)	Wikipedia(영어) http://en.wikipedia.org	백과 사전	Sea of Japan	병-J	병-J	동일	
			Korea(한반도)	미표기	병-E	변경	
			Japan	단-J	단-J	동일	
			East Sea	단-J	-	-	
	Wikipedia(한국어) http://en.wikipedia.org	백과 사전	동해	병-E	-	-	
			한국	미표기	-	-	
			일본	단-E	-	-	
	Wikipedia(일본어) http://jp.wikipedia.org	백과 사전	일본해	단-E	-	-	
			東海	기타*	-	-	
			韓國	미표기	-	-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www.nationalgeogra phic.com	지도 제작	日本	단-J	-	-	
			日本海	단-J	-	-	
			East Sea	병-J	병-J	-	
	맵 퀘스트 http://www.mapquest.com	지도 제작	Sea of Japan	단-J	단-J	동일	
			Korea	단-J	단-J	동일	
			Japan	단-J	단-J	동일	
벨트 아틀라스 http://www.welt-atlas.de	지도 제작	-South Korea -North Korea	병-J	병-J	동일		
		-Japan -China, -Russia	단-J	단-J	동일		
		Outside U.S & Canada 전체지도	병-J	-	-		
Google Earth http://earth.google.com	지도 제작	-North Korea -South Korea	단-E	단-E	동일		
		Japan	기타**	미표기	변경		
		Russia	병-E	단-J	변경		
Google map http://maps.google.com	지도 제작	Asia지도	병-E	-	-		
		-East Sea -Sea of Japan -Korea, -Japan	미표기	미표기	동일		
			-East Sea -Sea of Japan	단-J	단-J	동일	일본에 처우침

※ '검색어 또는 검색지도'는 2008년을 위주로 작성한 것임.

- ※ '단-E': East Sea 단독표기,
- '단-J': Sea of Japan 단독표기,
- '병-E': East Sea(Sea of Japan) 병기,
- '병-J': Sea of Japan(East Sea) 병기,
- '복합': 여러 형태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미표기': 바다 이름을 표기하지 않은 형태임.
- ※ 기타* : 전혀 다른 내용이 검색됨.
- 기타** : 국가 정보 자체가 검색 불가능함.

Ⅲ. 지명 오류 시정 기관의 활동 조사

현재 동해 지명 오류에 대하여 시정 요청 및 홍보·연구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들은 성격에 따라 국가 차원과 학술 차원, 민간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학술 단체와 민간 단체의 구분은 전문 연구 활동의 유무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前,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국토해양부(前,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가 있다. 학술 단체 및 기관으로는 동해연구회와 동해포럼,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이 있으며, 민간 단체로는 반크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개인 웹사이트가 있다.

동해 지명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각 기관 및 단체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과 성과를 모두 공개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실무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동해 지명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 내용을 파악하였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을 조사하였다.

각 기관 및 단체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중복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 성과를 구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2007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동해 병기율의 증가²⁴⁾를 공동의 활동 성과로 평가하되, 각 기관 및 단체의 개별적 활동성과는 연구 성과물이나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24) 외교통상부 동북아역사재단, 2007, East Sea, The Name East Sea Used for Two Millennia, p.17.

2007년 초 75개국 353개 정부 및 민간지도제작사가 발간한 지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0년에 2.8%에 불과하였던 동해 병기율이 2005년에는 18.1%, 2007년 초에는 2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 정부 및 관련 기관

1)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1991년 UN에 가입한 이후 동해 지명에 관한 오류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하고, 정부 부처 간의 관련 문제를 총괄하는 중앙행정부서이다. 현재 동해 지명과 관련한 업무는 유엔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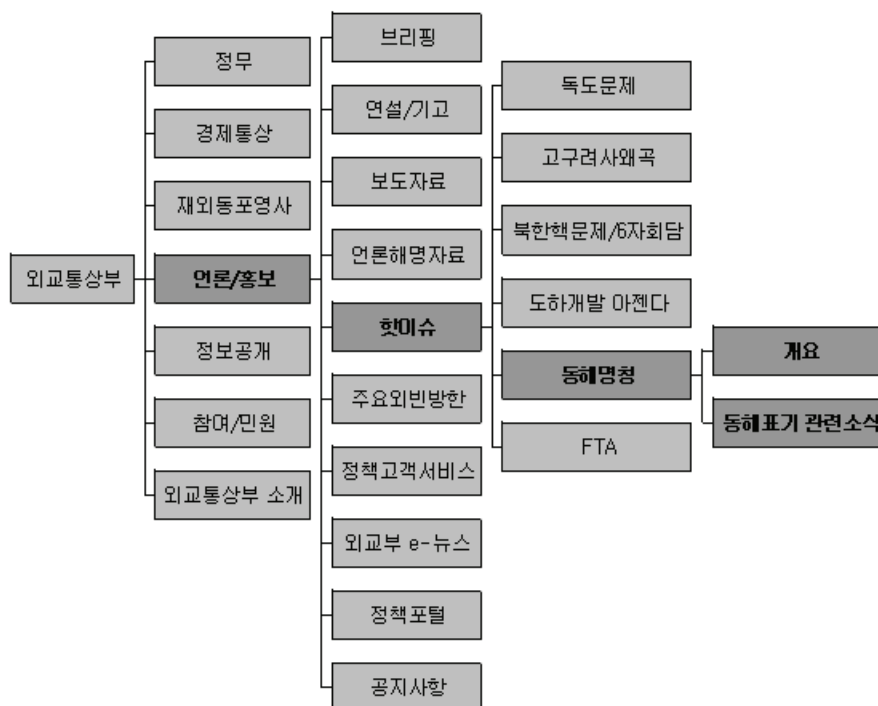
첫째,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국제수로기구 총회 등과 같은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동해 지명의 정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동해 지명을 일본해와 병기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1992년에 UN지명표준화회의에 참가하여 동해 지명의 일본해 호칭에 대하여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 개최되는 UN지명표준화회의, UN지명전문가회의 등 국제회의에 꾸준히 참가하여 일본해 표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둘째, 재외 공관의 외교망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에 동해의 정당성을 알리고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해외 여러 나라의 정부와 국제기구, 언론매체 등을 대상으로 교섭을 한다.

셋째, 해외에서 사용하는 세계지도, 백과사전, 교과서 등에 동해표기가 확산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해’ 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의 주요 지도제작사, 언론사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활동도 벌이고 있다.

동해 홍보를 위한 온라인 활동으로 동해 지명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웹사이트(www.mofat.go.kr)에 게시하여 제공하고 있다. ‘언론/홍보’의 ‘핫이슈’에서 동해명칭 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작한 홍보 동영상과, 2007년에 발간된 동해 표기 홍보

브러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영문판 대한민국 전도 및 세계전도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해 지명과 관련된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동해 지명의 표기를 위한 활동과 그 경위, 결과 등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림 11] 외교통상부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2)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前,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홍보컨텐츠지원과에서 동해 지명의 홍보 위주의 활동을 담당해오다가 2000년 이후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001년 온라인 오류 시정 이벤트를 시작으로 오류 시정과 관련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2004년에 외신홍보과에 오류시정 전담 부서가 생기면서 ‘오류시정종합관리시스템²⁵⁾

을 구축하여 온라인상의 오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고자 하였다. 현재 동해 지명 오류와 관련된 업무는 외신홍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주로 한국관련 기사의 외신 논조를 분석·평가하고, 해외언론용 기사자료 및 특집자료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오보·왜곡 보도에 대응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동해 지명의 오류를 발굴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와 같이 정보의 파급 효과가 큰 100대 온라인 사이트를 선정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웹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변화가 적은 웹사이트는 일주일마다, 언론기관 같이 업데이트가 잦은 웹사이트는 매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타 포털사이트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여 동해 지명의 표기 현황을 조사하여 자체 개발한 오류시정종합관리시스템에 자료를 등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동해 지명에 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웹사이트의 웹마스터 또는 Contact us에 표기된 주소로 이메일 또는 팩스를 발송하여 일차적으로 시정을 요청한다. 이후에 시정이 안 된 사이트는 이미 병기된 사이트의 내용을 첨부하여 2차 시정 요청을 한다. 3차로 직접 유선상의 연락을 취하여 사이트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기타 홍보 자료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한다.

해외홍보문화원은 해외홍보용 웹사이트 다이나믹 코리아(www.korea.net)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의 정부대표 영문 홈페이지로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최신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해 지명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Korea.net은 ‘News’, ‘About Korea’, ‘Directory’, ‘Multimedia’의 4개의

25) 오류시정종합관리시스템은 시스템에 입각한 오류시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 시민 참여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오류 발굴 및 시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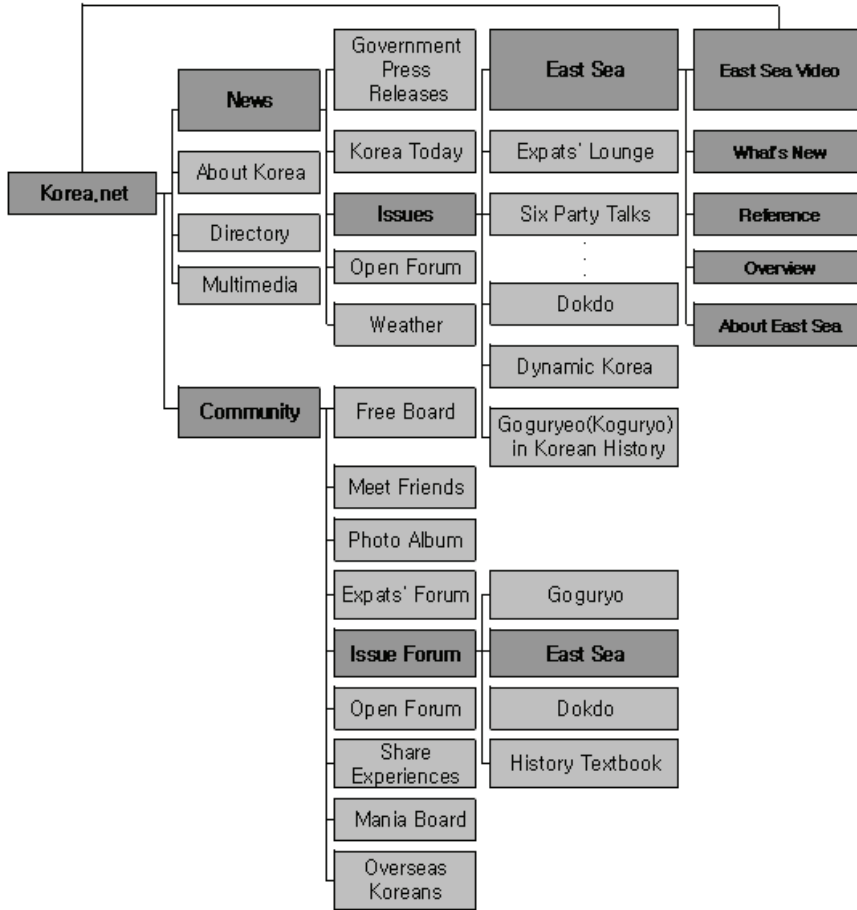


[그림 12] 해외문화홍보원의 오류 대응 과정

대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동해 지명에 대한 내용은 ‘News’의 ‘Issues’와 ‘Community’의 ‘Issue Forum’에서 다루고 있다.

첫째로 ‘News’ 메뉴의 ‘Issue’의 ‘East Sea’ 페이지를 살펴보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제작한 “The East Sea, not the Sea of Japan” 동영상의 자동적으로 재생된다. 또한 동해 지명과 관련된 뉴스와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Overview 페이지와 About East Sea 페이지를 링크시켜 관심 정도에 따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Community’의 ‘Issue Forum’은 네티즌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7월부터 관련된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게시물의 조회수는 1,000회에서 3,000회 정도로 평균 2000회 이상 조회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에 올라온 게시물이 대부분이고 2006년 이후로 게시물의 등록 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어 국민의 관심 정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해외문화홍보원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3)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국토해양부(前,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과의 국제협력팀에서 동해 지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97년부터 관련 업무를 시작하여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수로국(IHB)에서 발행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동해 지명을 표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UN지명표준화회의, 국제수로기구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와 국내

여러 회의에 참가한다. 국제회의를 통해 국외 지명 관계자들에게 동해 지명의 홍보 및 시정을 위한 활동을 한다. 국내 회의에서는 국내 관련 내용의 중복을 피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하며, 국외의 동해 지명과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거나 국제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국제수로기구(IHO)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소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총 10여 명의 인원이 각각의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IHO 회원국의 지명 업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연 평균 20회 정도 80여 개의 IHO 회원국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 담당자를 초청하거나 직접 방문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 해양 조사 기술의 연수 및 기술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제 사회에 동해 지명을 자연스럽게 알리고자 한다.

넷째, 홍보 자료를 발행하고 배포한다. 2007년에 발행된 영문 지도책 ‘Ocean Atlas of Korea, East Sea’에는 동해 지명의 역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동해의 자연환경과 문화, 여행지 등 동해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 책자를 IHO 회원국과 주요 지도제작사, 국외의 유명 도서관 및 학자, 재외 한국공관에 배포하였다. 이 책자는 2006년 5월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17차 국제수로기구총회에서 미리 배포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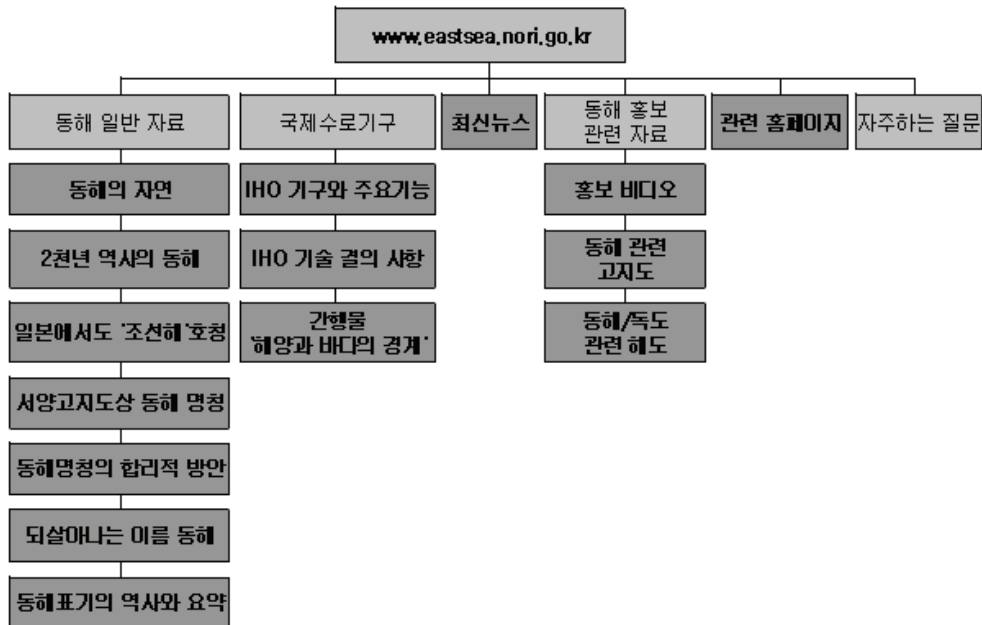
이 외에도 해양 조사 기술 연수와 같은 대외 협력 활동을 통해서 동해 지명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서 동해 지명 관련 전시회를 하는 등 동해 지명의 홍보를 위한 이벤트성의 활동도 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활동은 동해 웹사이트(<http://eastsea.nori.go.kr>)를 개설하여

26) 대한민국 정책포털 브리핑뉴스 2007년 7월 25일 기사(www.korea.kr)

운영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는 동해 지명과 IHO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동해 일반자료’에서 동해의 자연환경에 대해 소개하고, 동해 지명의 역사성과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수로기구’에서는 IHO에 대한 설명과 기술결의 사항 및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대해 게시하였다. ‘동해 홍보 관련 자료’에서는 홍보 비디오 및 동해 관련 고지도, 동해/독도 해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 ‘최신뉴스’, ‘관련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4] 국립해양조사원의 동해 웹사이트의 구성

4)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은 잘못된 역사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되었다. 주로 연

구사업, 전략·정책개발, 교류 협력, 홍보·교육, 번역·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동해 지명과 관련한 업무는 제3연구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해 지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와 전략 개발, 지명 표기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주목적으로 하며 학계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동해 지명과 관련된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류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청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온라인상의 계열성을 파악하여 대응 전략 및 논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해외의 지도 제작사와 같은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동해 지명을 알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명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셋째, 국내·외의 회의에 참석하여 동해 지명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언어로 된 홍보 자료를 책자 및 CD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해 지명에 관한 연구자를 지원하기도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웹사이트(<http://www.historyfoundation.or.kr>)에서는 동해 표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첫째, 대분류 메뉴의 ‘올바른 역사’의 ‘영토·영해’에서 ‘독도·동해 표기’를 다루고 있다. 이 페이지에서는 동해 지명이 일본해로 불리게 된 계기를 비롯하여, 동해 표기의 역사성과 국제규범에 따른 정당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과 활동에 대해서도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동해 표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문, 영문으로 된 자료를 첨부하였고, 동해 지명의 역사성과 정당성을 드러내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자료마당’ ‘디지털자료’의 ‘동해·독도 영상’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 일본어, 독일어 등 총 9개 국어로 제작된 동영상을 등재하고 있다.

셋째, ‘홍보자료실’에는 동해 배너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의 버전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동해 지명에 대한 정보를 중국 및 일본에서도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5] 동북아역사재단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표 17 > 동북아역사재단 디지털자료실의 동해 홍보 동영상 조회수

No.	제 목	작성일	조회
1	동해 홍보동영상[중국어]	2008-03-04	67
2	동해 홍보동영상[아랍어]	2008-03-04	41
3	동해 홍보동영상[스페인어]	2008-03-04	40
4	동해 홍보동영상[불어]	2008-03-04	42
5	동해 홍보동영상[러시아어]	2008-03-04	38
6	동해 홍보동영상[독일어]	2008-03-04	54
7	동해 홍보 동영상(일본어판)	2007-03-26	1,052
8	동해 홍보 동영상(영어판)	2007-03-26	1,002
9	동해 홍보 동영상(한국어판)	2007-03-26	4,258

※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동해·독도 영상' 페이지(2008.4.17 검색)

동북아역사재단의 홈페이지의 ‘자료마당’의 ‘디지털자료실’에 등재된 동해 홍보 동영상을 살펴보면 앞의 <표 9>와 같다. 한국어판 동영상 조회 수가 4,000회 이상, 영어 및 일본어판 동영상 조회 수도 1,000회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2007년 3월에 게시된 것으로 1년 동안 국내·외에서 많이 홍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에서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통해 한국관련 오류를 시정하고 있다.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은 1979년에 일본교과서 중심으로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청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잠시 사업을 맡았다가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업무를 이관시켜 교과서국제비교연구실에서 2003년까지 사업을 수행하였다.²⁷⁾ 2003년 2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주무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를 설립하여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한국문화교류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교류센터에서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한국학을 지원하는 사업과 교과서 속에 나타난 한국의 역사, 지리,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과서 비교연구실에서 교과서나 지도 등의 한국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해자료개발실에서는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해외로 발송되는 공문은 직접 보내기도 하지만 외교통상부나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하여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으로 발송하기도 한다.

27) 한국교육개발원, 2002, 세계화 시대의 한국바로알리기 -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과 그 대응 ; 회고와 전망 -, p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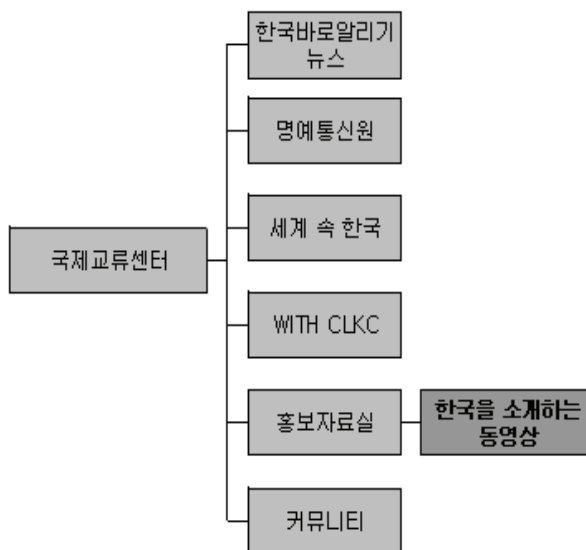
외국교과서 분석, 교과서 관련 세미나, 외국인교사 및 교과서 전문가 초청연수, 교과서 오류시정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동해 지명의 오류 시정을 위한 활동으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각국의 교육관련 정부기관 및 교과서 출판사 등을 방문하여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표 18> 한국문화교류센터의 교과서 오류 시정 활동

no.	연도	내용
1	2004.06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방문
2	2004.09	몽골, 중국 방문
3	2004.10	환태평양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참가
4	2004.12	폴란드, 체코 방문
5	2004.12	태국 방문
6	2004.12	말레이시아 방문
7	2004.12	인도 방문
8	2005.12	러시아 방문
9	2006.07	독일, 프랑스, 영국 방문
10	2006.07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방문
11	2006.11	호주 방문
12	2006.11	미국 방문
13	2006.12	중국 방문
14	2007.09	중국 방문
15	2007.09	싱가포르 방문
16	2007.11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방문

한국문화교류센터는 한국바로알리기 웹사이트(<http://www.ikoreamanse.com>)를 개설하여 활동하고 있다. 명예통신원을 선발하여 세계 속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을 수집하고 바로 알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동해 지명과 관련한 내용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험 및 해외 문화에 대한 소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홍보자료실’에 ‘한국을

소개하는 동영상’ 게시판에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작한 “Search for a Lost name: The East Sea” 동영상을 한국어판과 영어판 2종류로 등재하거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여 동해 지명에 대한 홍보 및 연구 활동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6] 한국문화교류센터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2. 학술 단체 및 기관

1) 동해연구회

동해연구회는 1994년 11월 외교통상부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학술기관으로 현재 이기석 회장 외 20여 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해연구회에서는 ‘동해’ 지명과 관련하여 국내·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유엔지명표준화회의, 유엔지명전문가회의, IHO 총회 등의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세계지도나 각종 홍보자료를 제

작하고 배포하고 있다.

동해연구회의 웹사이트는 1994년 동해연구회의 설립시작부터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웹사이트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해 관련 웹사이트가 산재해 있어 홍보 효과가 떨어지고 내용상의 차이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2006년부터 동해연구회의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정부 웹사이트로 홍보활동이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

동해연구회는 설립 이후 1995년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여러 기관 및 단체의 갈등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꾸준히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007년까지 총 13회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1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총 7편의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연구 성과는 이기석 회장의 동해 지명 관련 연구물²⁸⁾과, 동해 연구회의

-
- 28) 이기석, 1992, 발견시대 전후 동해의 인식, 지리학 제27권 제3호, pp.278~283.
_____, 1997, 국제수로기구(IHO)와 '일본해' 명칭의 공식화 과정, 제4회 동해연구회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pp.33~45.
_____, 1998, 동해표기의 표준화와 유엔 관련기구, 측지학회 정기 총회 발표논문
_____, 1998, The Historical Precedent for the East Sea(Sea of Japan): An Invisible Place naming War since 1992, Keynote Address, National Council for Geographic Education 83rd Annual Meeting, 1998 사대논총, pp.63~88
_____, 1998, 동해 지리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4호, pp.541~556.
_____, 1998, 제7차 UN 지명표준화회의 보고, 동해연구회 학술발표대회, 동해연구회, pp.56~98.
_____, 1999, The Historical Precedent for the Geographical Name of 'East Sea(Sea of Japan) The Virginia Geographer, Journal of the Virginia Geographical Society, 30-1/2, pp.13~28
_____, 2000, The Historical Precedent for the Geographical Name of 'East Sea(Sea of Japan)', The 29th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special Session II, Geography and Place Name: Political Geography of Sea Names, pp.83~112.
_____, 2000, 최근 동해 명칭 표기의 진전과 전망, 동해연구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8~28.
_____, 2002, 「New Trends in Identification of the East Sea(Japan Sea)」, The 8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Pacific Geographical Institut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The Society for East Sea, pp.156~168.
_____, 2002, 최근 동해 표기의 경향과 국제표준화 전략, 동해 명칭에 대한 학술세미나, pp.116~135.
_____, 2002, 동해 지명 국제표준화, 무엇이 문제인가, 제3회 측량의 날 기념 및 측량기술진흥대회 & 제1회 GIS 활용 워크숍 보고서, pp.27~30.

세미나 자료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2007에 발행된 『분노의 지리학』에도 활동성과가 나타난다. 이기석 회장의 동해 지명에 관한 활동을 통해 이 책의 저자인 미국의 지리학자 Harm de Blij은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지도와 바다 이름을 사용할 때 동해 지명을 우선적으로 병기하여 사용하였다.²⁹⁾

<표 19> 동해연구회의 활동 내용

연도	활동 내용	장소	비고
1994	The Name Used for Two Millennia EAST SEA	-	-
1995	「동해」 지명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서울	서울대 사범대 지리교육과 공동주최
1996	「동해」 지명에 관한 국제학술워크샵	서울	-
	『동해연구회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	-
1997	「동해」 지명 표준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서울	-
1998	「동해」 지명과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서울	-
	동해연구회 학술발표대회	-	-
1999	「동해」 지명과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서울	문화일보 공동주최
2000	제20차 세계 지리학대회(IGC)에 동해 명칭에 대한 특별 분과 설치	서울	세계지리학대회 조직위원회, 한국지도학회 공동 주최
	제 6회 동해명칭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2001	제7회 「동해」 지명과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학술 세미나	서울	-
2002	The Eigh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 Special Emphasis Concerning the North Pacific Ocean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태평양지리연구소

_____, 2002, New Trends in Identification of the East Sea(Sea of Japan), The 8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Special Emphasis Concerning the North Pacific Ocean, Pacific Geographical Institute, Far Eastern Branch, Russian Academy of Sciences, Vladivostok, Russia, pp.156~166.

_____, 2004, 지리학 연구와 국제기구-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대한지리학회지 제 39권 1호, pp.1~12.

_____, 2004, 국제수로기구(IHO) 해양명칭 표준화와 ‘일본해(Japan Sea)’, 동해 명칭의 국제적 통용을 위한 전략 개발, 동해연구회, pp.91~98.

29) 하림 데 블레이, 2007, 분노의 지리학, 천지인, p.66.

연도	활동 내용	장소	비고
2003	The Nin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 Special Emphasis Concerning the Sea Names in Far East Asia	중국 상해	중국 상해 복단(Fudan)대학, 성신여대 한국지리연구소 공동 주최
	EAST SEA The Names EAST SEA Used for Two Millennia 발간	-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공동 주최
2004	- 『“동해” 명칭의 국제적 통용을 위한 전략개발』	-	-
	『The Ten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Special Emphasis Concern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Seas Names』	프랑스 파리	Association Francaise pour l'Etude de la Coree, France Korea daily Washinton DC.
2005	The 11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미국 워싱턴 DC	-
2006	The 12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and East Sea	한국 서울	-
2007	The 13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and East Sea	오스트리아 빈	동북아역사재단, 비엔나대학 공동주최

<표 20> 동해연구회의 연구 성과

연도	연구 활동	비고
1994	The Name Used for Two Millennia, EAST SEA	홍보책자
	이천년 동안 쓰인 명칭 동해	홍보책자
1995	동해 지명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 논문 발표 I~III	논문 9편
1996	「동해」 지명에 관한 국제학술워크샵 주제발표 I~II	논문 6편
	동해연구회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논문 2편
1997	「동해」 지명 표준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논문발표 I~III	논문 12편
1998	「동해」 지명과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논문 8편
	동해연구회 학술발표대회	논문 4편
1999	「동해」 지명과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논문 12편
2000	제20차 세계 지리학대회(IGC)에서 동해 명칭에 대한 특별분과 설치	-
	제6회 동해명칭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논문 6편
2001	제7회 「동해」 지명과 바다명칭에 대한 국제학술 세미나	논문 6편

연도	연구 활동	비고
2002	The Eigh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 Special Emphasis Concerning the North Pacific Ocean	논문 19편
	East Sea in World Maps	홍보책자
2003	The Nin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 Special Emphasis Concerning the Sea Names in Far East Asia	논문 16편
	EAST SEA, The Name EAST SEA Used for Two Millennia 발간(외 교통상부, 해양수산부)	홍보책자
2004	『“동해” 명칭의 국제적 통용을 위한 전략개발』, 해양수산부 용역	논문 8편
	『The Ten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Special Emphasis Concerning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Seas Names』	논문 14편
	East Sea in Old Western Map with Emphasis on the 17~18th Centuries	홍보책자
2005	The 11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논문 16편
	EAST SEA, The Name East Sea Used for Two Millennia	홍보책자
2006	The 12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and East Sea	논문 14편
2007	The 13th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aming of Seas and East Sea	논문 19편
	The Historical Precedent for the " EAST SEA"	홍보책자
논문 총 171편, 홍보책자 총 7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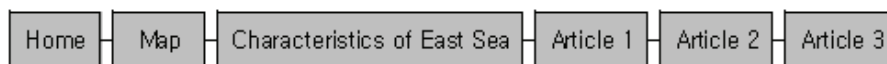
2) 동해포럼

동해포럼(EAST SEA FORUM)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의 김 신 교수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다. 김 신 교수는 동해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문과 저서³⁰⁾를 내는 등 동해 지명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

30) 김 신, 동해표기의 사적 고찰, 1997, 사회과학논집 15권, 경희대학교사회과학대학, pp.195~21
 _____, 동해의 지정학적 역사에 관한 연구, 1998, 기업경영연구 제5권,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정책
 연구원, pp.93~115.
 _____, 동해 표기의 역사적 소고, 1998, 경영사학 18권, 한국경영사학회, pp.265~284.
 _____, 750년 전 고지도에 최초로 동해 표기: '빈랜드 지도'속의 동해, 1998, 월간조선 220호, 조
 선일보사, pp.426~432.
 _____, 동해표기의 역사적 과정, 2001, 경영사학 제16집 제3호 통권 27호 한국경영사학회,
 pp.199~222.
 _____, 세계지도속의 동해표기연구, 2002, 사회과학논집 제20집, 경희대학교, pp.75~91.

다. 동해포럼 웹사이트는 1999년에 국제 도메인 기구에 등록되었으며, 영토문제를 다루는 사이트로 개설되었다. 초기에는 동해와 독도 등에 관한 논문이나 자료를 영문으로 제작하여 외국인이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현재는 관련된 고지도와 동해에 관한 자료와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동해포럼 웹사이트를 접속한 외국인들이 자료를 요청하거나 외국의 대학에서 강의나 세미나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동해 지명을 해외에 알리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동해포럼 웹사이트(www.eastseaforum.org)는 ‘Map’, ‘Characteristics of East Sea’,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으로 구성되어 있다. ‘Map’에서 동해로 표기된 26개의 고지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Characteristics of East Sea’에서는 동해의 지리적 위치와 자연 환경, 기후와 자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rticle 1~3’에서는 동해 지명의 기원 및 역사지리적 연구, 고지도와 고문서에 나타나는 지명에 대한 설명, 해외 사례를 통한 동해 지명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림 17] 동해포럼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
- ____, 일제하 동해와 지명개칭사례연구, 2003, 경영사학 제18집 제1호 통권 30호, pp.279~294.
 - ____, 「IHO와 동해명칭」, 2004, “동해” 명칭의 국제적 통용을 위한 전략개발, (사)동해연구회, pp.82~90.
 - ____, 국제환경과 동해표기의 오류, 2005, 국제·경영연구. 제11집 제2호, 경희대학교 국제경영연구소, pp.195~210.
 - ____, IT 기술과 대양과 바다의 경계, 2006, 인터넷비즈니스연구 제7권 제2호, 한국비즈니스학회, pp.162~179.
 - ____, Hydrographic environment and SP-23(Limits of Oceans and Seas), 2007, 제 13회 동해 지명과 바다 명칭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동해연구회·동아시아 한국학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 pp.135~148.
 - ____, 1997, 잃어버린 동해를 찾아서, 두남
 - ____, 2002, 동해와 국제수로기구, 두남
 - ____, 2004, 동해의 경계와 명칭, 지영사
 - ____, 2005, 동해연구-동해 지명 표기의 역사적 이론과 전략-, 지영사

3)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은 고지도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 및 학습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와 간도 등 우리나라 영토와 동해와 제주도 등의 지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시회 개최와 지속적인 문화교실 개설을 통해 국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동해 지명을 비롯한 영토와 역사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혜정박물관에서는 동해 지명과 관련하여 실증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협조하기도 한다. 박물관이라는 기관의 성격상 주로 전시를 통하여 동해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마다 한 두 차례 개최되는 전시를 통해서 비중은 다르지만 동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 2002년에는 동해 지명을 주제로 하여, 지명 표기에 대한 문제와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전시를 하였다. 전시와 함께 ‘동해’ 명칭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4년에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도록 『Sea of Korea』를 발간하였으며, 2003년부터 해마다 고지도를 주제로 한 달력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혜정박물관은 2002년에 연구소를 개설하고 2005년에 박물관으로 정식으로 승인받았다. 이후 연간 7~8,000명의 인원이 관람을 하고 있다.

<표 21> 혜정박물관의 동해 관련 전시

No	전시 기간	전시 제목	주 제	전시장소	비고
1	2002. 10.30 ~ 2003.3.1	제 1회 아! 동해, 그 이름을 찾아서	-신문으로 보는 동해 지명표기의 국제표준화 문제 -바다의 이름은 어떻게 결정되나 -세계지도상의 바다 명칭 표기 사례 -우리의 동해 되찾기 노력 -한국해와 일본해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
2	2005.5.1 7 ~12.31	제 3회 찾아라! 우리땅, 우리역사	-서양고지도와 우리 땅 -서양고지도와 KOREA -서양고지도와 Sea of Korea	혜정박물관	-

No	전시 기간	전시 제목	주 제	전시장소	비고
3	2005.7.15 ~9.15	제 4회 아! 대한민국 COREA	-아름다운나라-대한민국 한반도 -대륙의 관문, 민족의 터전-간도/북방영토 -대양을 향해 열린 창-제주도 -동해에 우뚝 선 기상-울릉도/독도 -영원한 우리 바다-동해/코리아해 -고지도-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	COEX	-
4	2006.8.28 ~10.31	제 6회 고지도에서 찾은 우리 땅 -간도에서 한라까지-	-	제주 한라대학	제주한라대학 공동주최
5	2007.9.6 ~9.30	고지도 세계도시전 -고지도에서 찾은 세계 도시 특별전시회-	- 동해 특별전시실	중앙일보 사옥 특별전시실	-
6	2008.5.2 ~5.22	제 10회 고지도 전시회	-아! 동해 삶의 흔적 간도	청주문화산업재단전시실	청주 불교방송 공동주최



[그림 18] 해정박물관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해정박물관 웹사이트(<http://oldmaps.khu.ac.kr>)는 기관의 성격상 동해 지명의 직접적인 홍보를 하기보다는 오프라인상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동해 지명에 대한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다. ‘전시안내’를 살펴보면 ‘상설전시’와 ‘특별전시’에서 동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전시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해정박물관 웹사이트는 동해 또는 한국해로 표기된 고지도를 주제로 디자인하여, 자연스럽게 동해 지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민간 단체 및 개인

1) 민간기획단 반크

한국바로알리기 민간기획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www.prkorea.com)는 한국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1999년에 만들어진 민간 단체이다. 1999년 National Geographic에 일본해 단독 표기의 시정을 요청하면서 2000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동해 지명과 관련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8년 현재 국내 회원 14,000여 명, 해외 회원이 5,500여 명으로 총 19,5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가입한 회원들은 보통 2~3개월 동안 활동을 하며, 월 평균 100명 정도가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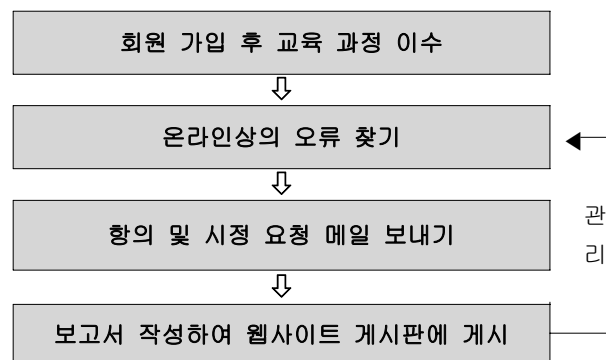
동해 지명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활동은 한국바로알리기³¹⁾ 사업의 일환으로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1세기 을지문덕 찾기’와 ‘서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21세기 을지문덕 찾기’ 프로젝트는 동해 지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해외의 초·중·고등학교에 동해로 표기된 세계영문지도 및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사업이다. ‘서희 프로젝트’는 해외의 한국학 연구자에게 한국사 홍보 브로

3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반크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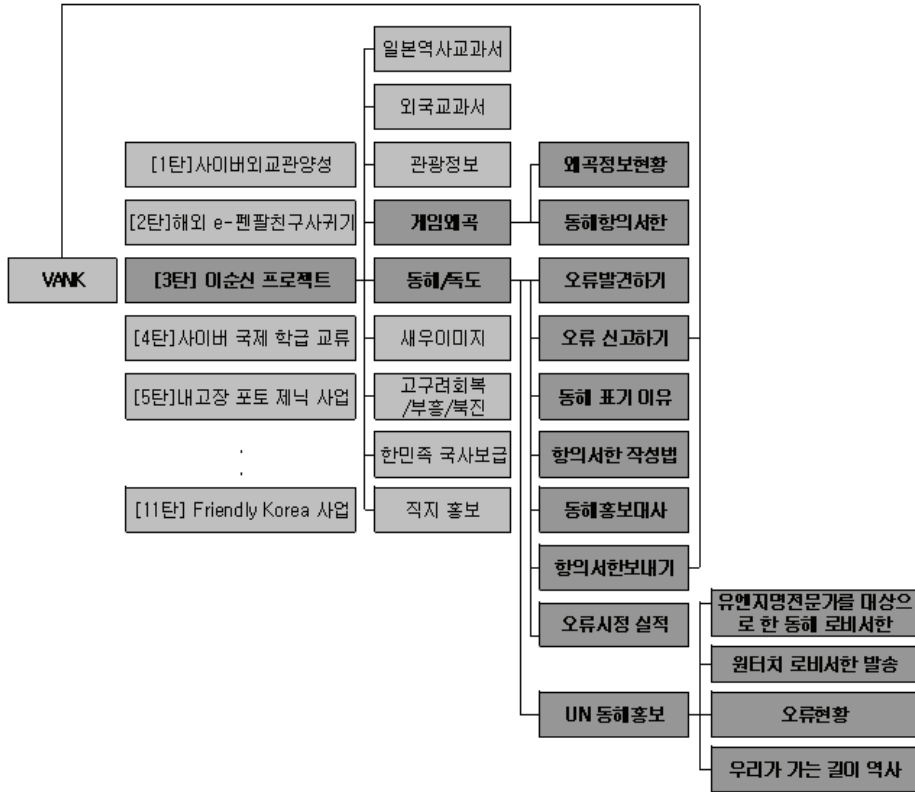
서나 홍보 엽서 등을 보내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게임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 한국바로알리기 운동과 UN 지명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도 동해 지명의 오류를 막고, 동해 지명이 확산되도록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뱅크에 가입한 회원들은 각자 관심 분야에 지원하여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이버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한다. 온라인상에서 오류를 찾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개인 명의로 항의 메일을 발송하고, 오류 시정을 요청한다. 이후 오류시정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상으로 제출하여 게시판을 통한 자료 구축이 이루어진다. 현재 이러한 활동을 마치고 제출한 보고서가 6,900여 건이며, 이중 상당수가 동해 지명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선정한 1,000개의 웹사이트의 오류 내용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뱅크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시정 대상 사이트를 한 번씩 점검하고 미시정 사이트에 재차 시정을 요청하는 활동을 한다. 회원 개인적으로는 일회적인 활동이지만 많은 회원들이 이와 같은 활동을 반복하여 결과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2004년부터 ‘동해바로알리기’ 사업을 시작하여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중·고등학교의 특별활동으로 확장시켜 일회성의 활동의 단점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림 19] 뱅크의 오류 찾기 과정



[그림 20] 반크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반크의 활동성과는 웹사이트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웹사이트 게시판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온·오프라인을 포괄하여 동해 지명이 시정된 90여 건의 사례가 게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500개의 각종 웹사이트, 200개의 외신 사이트, 100개의 항공사 웹사이트 목록 중 166개의 웹사이트에서 오류가 시정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5년에 게시된 통계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동해 단독 표기, 동해 병기, 일본해 삭제로 오류가 시정된 건수가 총 259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의 통계 결과는 나타나있지 않다. 1,000개 사이트 외에 해외 학자들과 해외 지명위원회 위원들에게 동해를

알리는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 정리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적 정리를 따로 하지 않은 이유는 통계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과 통계자료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 공신력이 있는 웹사이트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링크시켜 사용하는 웹사이트가 많이 있다. 따라서 과급력이 있는 웹사이트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웹사이트를 파악하여 계수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하나의 공신력이 있는 웹사이트의 표기가 시정된 경우는 하나의 웹사이트 이상의 시정 효과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급력이 다른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동일한 수치로 통계 처리하는 것은 활동성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의미와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2005년 이후의 자료는 통계화하지 않고 있다.

<표 22> 반크의 동해 관련 왜곡 시정 성과

구 분	동해 단독표기 성취	동해 병기	일본해 삭제	시정 합계
2000년	-	1	-	1
2001년	-	1	-	1
2002년	4	13	32	48
2003년	12	39	115	166
2004년	-	11	32	43
합 계	16	103	179	259

※ 출처: www.prkorea.com, 2005년 2월 자료.

2) ‘다음 세대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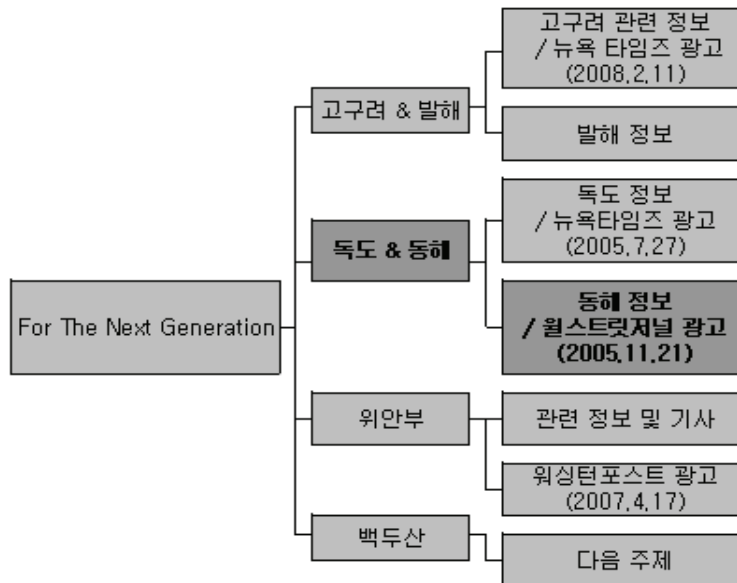
‘다음 세대를 위해’ (www.forthenextgeneration.com)는 서경덕 홍보전문가가 2005년 7월에 개설한 한국 역사 홍보 웹사이트이다.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동해와 독도 문제를 시작으로 하여 위안부 문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왜곡에 대한 문제

를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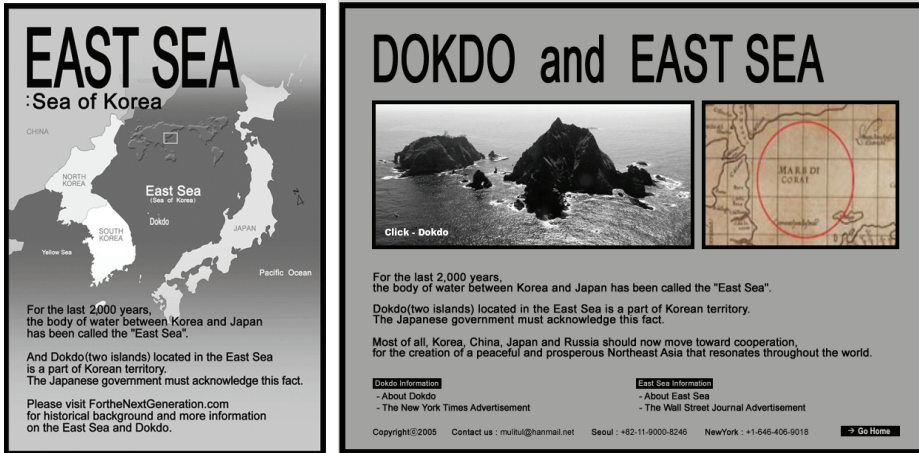
웹사이트를 개설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서 수많은 테스트 작업을 거쳐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웹사이트를 구성하였다.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는 전문가, NGO 단체, 정부 관계자 등을 통해 자료를 얻고 자문을 구하였다. 웹사이트의 운영비 및 광고비는 자비로 충당하기도 하고, 기업의 협찬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500여 명의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음 세대를 위해’에서는 고구려와 발해, 독도와 동해, 위안부문제에 대해 다루었고 백두산 지명에 대해 앞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해 올바른 역사와 정보를 지도와 동영상, 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등 해외 언론에 이 내용을 담은 이미지 광고를 실어 한국을 알리고자 하였다.

동해에 관련된 정보는 외교통상부에서 2005년에 제작한 홍보용 팸플렛 ‘East Sea : the name East Sea used for two millennia’를 제공하고 있



[그림 21] ‘다음 세대를 위해’ 웹사이트의 동해 페이지 구성



[그림 22] ‘다음세대를 위해’ 웹사이트 광고 이미지(좌)와 동영상(우)

으며, 자체적으로 동해를 알리기 위한 광고물을 제작하여 The Wall Street Journal 2005년 11월 21일자 신문에 신기도 하였다.

서경덕 한국 홍보 전문가가 The Wall Street Journal에 동해 홍보를 위해 게재한 광고 효과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광고가 게재된 The Wall Street Journal의 세계적 위상과 판매고를 생각해보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접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하단에 실린 이메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메일이 약 3,000여 건이 있었다. 이중 300여 건은 해외에서 발송된 것으로 관련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국 및 일본인이 보낸 메일도 있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의 한 교수는 이 내용을 수업 자료로 활용해도 되는지 문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이 광고를 접하고 나서, 지역신문에 동일한 광고를 실으려고 하는 등 해외의 한국 단체의 움직임도 있었다. 직접적인 시정 효과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위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동해 지명에 대한 해외 여론의 변화라는 간접적·잠재적인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IV. 지명 오류의 대응 분석

1. 동해 지명 표기에 대한 대응

여러 기관 및 단체의 동해 지명 표기에 대한 대응 활동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시정을 요청하는 활동과 각종 홍보 활동, 정책 및 논리 개발과 같은 연구 활동이다. 앞서 조사한 여러 기관 및 단체의 주요 활동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으로 구분하여, 시정요청·홍보·연구의 세 가지 영역 중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활동을 표로 간단히 정리하였다.

〈표 23〉 각 기관 및 단체의 동해 지명 관련 주요 대응 활동

구분	정부 및 관련 기관					학술 단체 및 기관			민간 단체 및 개인	
	외교 통상부	해외 문화 홍보원	국립 해양 조사원	동북아 역사 재단	한국학 중앙 연구원	동해 연구회	동해 포럼	해정 박물관	반크	다음 세대를 위해
오프라인 활동	시정 요청	(시정 요청)	시정 요청	연구	시정 요청	연구	연구	홍보	(홍보)	(홍보)
온라인 활동	(홍보)	시정 요청 /홍보	(홍보)	시정 요청 /(홍보)	-	-	홍보	-	시정 요청	홍보

※ 비교적 비중이 적은 활동은 ()로 표시함.

첫째, 시정 요청을 주로 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에서 시정을 요청하는 활동은 정부 및 관련 기관인 외교통상부,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온라인상의 시정요청을 주로 하며 온라인상의 요청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시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각 기관에 따라 담

당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외교통상부는 해외공관을 통하여 각국의 정부를 상대로 직접적인 시정요청을 하며, 해외문화홍보원은 정부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이트를 포함한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시정요청을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주로 국제수로기구(IHO)와 회원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며,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에 동해 명칭이 실리도록 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교과서 속의 한국에 관한 오류 시정 활동에서 동해 지명에 관한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시정을 요청하는 곳은 정부 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과 민간 단체인 반크에서 직접적인 시정 요청 활동을 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오류를 발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한다.

둘째, 홍보 활동은 주로 홍보물 제작과 배포, 동해 지명에 대한 여러 자료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프라인상의 홍보 활동을 하는 곳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반크, ‘다음 세대를 위해’가 있다.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은 주로 전시를 통해서 동해 지명의 역사성에 대해 홍보하고, 반크는 동해 지명이 표기된 지도나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발송하는 형식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홍보 활동을 하는 곳은 정부 기관인 외교통상부,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이 있으며,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와 뉴스, 동영상 등을 게재하고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 홍보를 하는 정부기관으로 다른 정부기관에 비하여 동해 지명의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학술 단체인 동해포럼은 영문사이트로 동해 지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글과 관련 고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단체인 ‘다음 세대를 위해’ 웹사이트에서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동해 지명에 대한 내용을 광고 이미지를 통해 간단명료하게 알리고 있다.

셋째, 연구 활동을 하는 기관은 정부 관련 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과 학술 단체인 동해연구회 및 동해포럼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온라인상의 시정활동을 토대로 대응 방안 및 논리개발에 역점을 두고 여러 웹사이트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동해연구회는 다양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의 여러 학자 및 관계자들이 바다와 동해 지명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학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해포럼은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김 신 교수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기초로 한다.

2. 온라인상의 대응 과정

조사한 10개의 기관 및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해 지명의 오류에 대한 대응 활동 중 온라인상의 활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다. 물론 대부분의 기관에서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나, 단순한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기능은 다소 부족하다. 온라인상에서 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들을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동해 지명 관련 온라인상의 대응 활동 기관 및 단체

구분	시정 요청 위주의 활동	홍보 위주의 활동
정부차원	해외문화홍보원, 동북아역사재단	외교통상부, 국립해양조사원
학술차원	없음	동해포럼
민간차원	반크	‘다음 세대를 위해’

1) 정부 및 관련 기관

온라인상의 웹사이트를 주요 대상으로 동해 오류에 대응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은 해외문화홍보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이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온라인 웹사이트를 주요 대상으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해외의 영향력이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를 언어권별로 분류하여 각 담당자가 해당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오류를 발굴한다. 오류가 발견된 사이트는 해당 메뉴의 담당자와 접촉을 시도하여 동해 지명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시키고 동해 지명의 표기를 요청한다. 이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며, 점차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알리거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대응 논리 개발과 같은 연구 기능을 담당하기에 앞서, 실제적으로 온라인상의 동해 표기 현황에 대해 조사하며 시정활동을 하였다. 대응 형식은 해외문화홍보원과 비슷하나 웹사이트의 분야를 한정시켜 오류 파악 및 대응 활동을 시도하였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비교적 업무의 분장이 잘 이루어져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동해 지명에 관한 업무는 타 업무와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대응하는 대상이나, 대응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이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동해 지명에 대한 전담 부서 혹은 전담 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학술 단체 및 기관

학술 단체 및 기관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연구와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동해연구회는 설립 이후 해마다 국내·외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연구된 많은 자료와 연구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동해포럼 웹사이트는 영문으로 제작된 동해 홍보용 웹사이트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3) 민간 단체 및 개인

반크와 ‘다음 세대를 위해’ 웹사이트에서 동해 지명의 오류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반크는 범국민적 차원의 운동으로 19,5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시정 요청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민간 차원의 활동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온라인 사이트는 광고 홍보물을 게재하여 동해 지명을 알리고 있다. ‘2000년 동안 한국과 일본사이의 바다를 ‘동해’라고 불려왔다.’는 짧은 문구가 적힌 광고 이미지를 제작하여, The Wall Street Journal과 같은 해외 언론에 게재하여 일차적으로 동해 지명에 대해 홍보하였다. 이차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찾아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 지명과 동시에 한국해(Sea of Korea)를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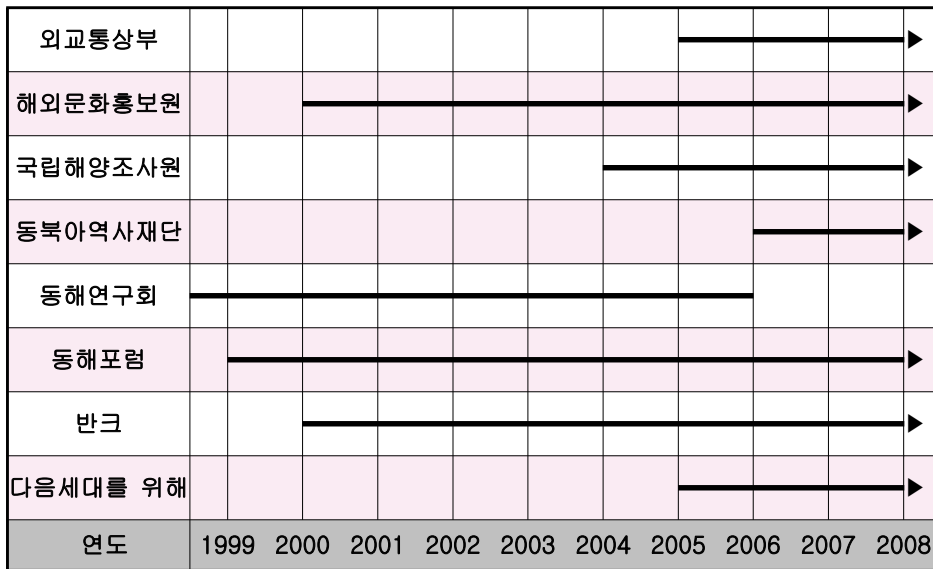
3. 온라인상의 대응 분석

1) 대응 시기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온라인상의 대응 활동을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면, 동해연구회가 현재는 활동하지 않지만, 창립 시기인 1994년부터 시작하여 가장 빨리 온라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대중화 되는 시기인 2000년을 전후로 해외문화홍보원과 동해포럼, 반크가 온라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인터넷의 대중화는 해외문화홍보원의 오류 찾기 대회와 반크의 범국민적 차원의 오류 시정 활동의 전개를 가능하게 했다. 학술적으로 동해 지명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던 동해포럼도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온라인상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국내에는 국민 단합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5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이에 많은 국민들과 국가 기관에서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외교통상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은 동해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웹페이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와 같이 민간 차원의 온라인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다. 참여정부의 독도 및 동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아래, 동해 지명 문제와 같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오류 내용을 시정하고 국가적으로 적합한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출범하게 되었고, 재단의 설립과 함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에 관한 홍보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림 23] 각 기관의 온라인상의 대응 시작 시기

2) 대응 과정

온라인상의 시정 요청 작업은 <오류 발굴>-<시정요청>-<시정확인 및 관리>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로 활동 방법과 활동 과정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오류 발굴 단계를 살펴보면, 수많은 웹사이트를 모두 검색해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신력이 있고 파급 효과가 큰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지도제작사, 주요 외신과 같은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과 단체에서 선정한 주요 웹사이트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각 기관간의 업무 분담과 협력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오류 시정 요청 단계를 살펴보면 웹사이트에 contact us, customer service 형식으로 운영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웹사이트를 구동을 담당하는 전산 관리자이거나 문의사항 등을 접수하는 담당자이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제공한 콘텐츠 담당자를 찾아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콘텐츠 담당자가 없거나, 잘 알려주지 않는 등 담당자를 찾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한 콘텐츠 담당자에게 동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여도 잘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웹사이트가 아닌 이상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득실이 없기 때문에 동해 지명에 관한 문제를 쉽게 간과해버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웹사이트에 이미 등재한 자료를 수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거나, 기존의 자료를 수정하는 데에 있어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류 시정 및 확인 단계는 오류 발굴 단계와 같이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동해 지명 표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시정되었다고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의 다른 압력에 의해서나, 자체적인 입장이 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단계이다.

3) 대응 기관

동해 지명을 위해 온라인상의 대응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는 외교통상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동해포럼, 반크, ‘다음 세대를 위해’ 7개의 기관 및 단체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과 반크는 온라인상의 시정활동을 주로 하였으며, 외교통상부,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포럼, ‘다음 세대를 위해’ 웹사이트는 홍보 위주의 활동을 하였다. 해외문화홍보원은 온라인상의 한국 홍보의 일환으로 오류 시정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동북아역사재단, 반크는 조직을 갖춘 기관으로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하고 있으며, 동해포럼과 ‘다음 세대를 위해’ 웹사이트는 실제로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로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 조직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동해포럼과 ‘다음 세대를 위해’를 제외하고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담당부서를 살펴보면, 해외문화홍보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은 외신홍보과와 제3연구실에서 오류 시정을 위한 활동을 비교적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유엔과와 국립해양조사원의 국제협력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단체인 반크는 오류 시정 파트로 구분하여 동해 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 지명만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한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둘째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수를 살펴보면, 업무 보조원을 포함하여 3명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을 포함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더 적은 인원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각 기관 및 단체의 강·약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5> 동해 지명 관련 온라인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 현황

구분	활동 기관 및 단체	담당부서	주요활동			활동인원	강점	약점
			시정요청	홍보	연구			
정부 차원	외교통상부	유엔과	○	●		1명 (업무보조 2~3명 추정)	-해외공관의 활용	-외교정책, 국제 분 위기 등을 고려
	해외문화 홍보원	외신홍보과	●	●		5명	-비교적 집중적인 작업이 이루어지 고 있음	-
	국립 해양조사원	국제팀	○	●		4명	-기술적 측면의 접 근 가능 -동해 문제만 집중 적으로 다루는 웹 사이트 운영	-동해 웹사이트가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 빈도 적음
	동북아 역사재단	제3연구실	●		○	2~3명 (업무보조 2명 추정)	-집중적인 연구 및 관리	-대외적으로 잘 알려 져 있지 않음
학술 차원	동해포럼	-		●	○	1명	-고지도 및 관련 글 제공	-
민간 차원	반크	오류시정팀	●	○		1명 (+회원수)	-범국민차원의 운동	-일회성 활동 -회원의 개인적인 활 동의 통제가 어려움
	다음 세대를 위해	-		●		1명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활용	-일회성에 그치기 쉬 움

※ ●는 온라인상의 활동 비중이 ○보다 큰 것임.

※ 동해포럼과 ‘다음 세대를 위해’는 비조직 단체이므로 ‘-’으로 조직적 특징이 없음을 표시함.

외교통상부는 해외공관의 활용으로 이미 해외 각국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

표하는 기관으로서 국제 분위기와 외교 정책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리하게 된다.

해외문화홍보원은 한국의 홍보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홍보 측면에서 시정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해 지명을 포함하여 한국에 대한 오류를 발굴하고 시정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 조사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측면의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 협력 사업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동해 지명을 사용할 기회가 많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여러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전략적인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 비하여 동해 지명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정 요청 작업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민간 단체인 반크는 동해 지명에 관한 문제를 범국민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켜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큰 장점이다. 그러나 회원들의 활동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개인적인 활동까지 통제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4) 대응 내용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상의 홍보 내용 및 전달 방식을 살펴보았다.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동해의 지리적 범위 또는 동해 지명의 상징에 관한 내용, 고지도나 고문서 등에 나타난 동해의 역사성 및 근거, 일본해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일본의 주장 및 근거, 국제 규범 및 IHO에

관련된 내용, 국제적인 표기 변화 양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동해 지명 표기와 관련하여 웹사이트에 홍보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개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고지도와 고문서 등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동해 지명의 역사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국제수로기구와 국제 규범에 대해 다루면서 국제사회에서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일본해 명칭이 확산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지명의 부당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은 외교통상부와 동북아역사재단, 반크 웹사이트에서만 간단히 다루고 있었다. 일본의 주장을 다루는 것은 자칫 또 다른 형태의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일본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동해 지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외문화홍보원과 반크에서는 동해의 지리적 위치나 범위, 동해 지명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 해외문화홍보원의 경우 해당 페이지에 등재된 동해 홍보 동영상의 첫 부분에서 간단히 다루고 있다. 이는 시각화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여러 나라의 IT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영상이 실행되기까지 변수가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크 웹사이트는 동해지명을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으며, 동해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의 위치에 대해 소개하면서 동해가 표기된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동해의 지리적인 위치와 범위를 설명하거나 지도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동해를 지칭하기 위해서 ‘일본해로 알려진 동해’라고 설명하게 되어 오히려 동해보다 일본해를 더욱 강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동해 지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리적 위치와 범위를 설명하거나 지도를 통해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전달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동영상 및 기타 자료의 제공 여부와 웹사이트 사용자의 참여 공간의 개설 여부, 동해 표기와 관련된 내용을 접하기까지의 접근단계,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우선 동영상 및 기타 자료의 제공을 통해서 시각화된 자료와 동해 지명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홍보용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조사한 모든 기관에서 여러 형태의 자료를 등재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웹사이트 사용자의 참여 공간은 주로 게시판의 형태로 나타난다. 해외문화홍보원에서 동해 지명 이슈를 다루는 게시판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게시판을 통한 국민들의 동해 지명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저조한 편이다.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포럼, ‘다음 세대를 위해’ 웹사이트는 게시판과 같은 참여 공간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해 지명과 관련된 내용을 접하기 위한 접근단계를 살펴보았다. 국립해양조사원이나 동해포럼 웹사이트의 경우 동해 지명만을 다루는 웹사이트이므로 0단계로 표시하였다. 해외문화홍보원과 반크, 다음세대를 위해 웹사이트의 경우 1단계로 첫 화면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외교통상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3단계로 비교적 접근이 어려운 편이었다.

외국어서비스 현황은 북미권, 남미권, 유럽권, 아시아권, 중동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영문 서비스는 모든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동해포럼과 ‘다음 세대를 위해’ 웹사이트는 영문으로만 제작되어 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아시아권의 언어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문화홍보원과 반크 웹사이트는 이외의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

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반크는 아랍어까지 제공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주요 기관 및 단체의 온라인상의 활동 내용

구분	외교 통상부	www.mofat.go.kr						
		해외 문화 홍보원	www.korea.net					
			국립 해양 조사원	http://eastsea.nori.go.kr				
				동북아 역사 재단	동해 포럼	www.historyfoundation.or.kr		
www.eastsea.org		반크 www.prkorea.com	다음 세대를 위해 www.forthenextg eneration.com					
내 용	동해의 의미 (지리적 범위 및 상징성)		✓	-	✓	✓	✓	-
	동해의 역사 및 근거 (고지도, 고문서 등)	✓	✓	✓	✓	✓	✓	✓
	일본해 확산 경위	✓	✓	✓	✓	✓	✓	
	일본의 주장 및 근거	✓	-	-	✓	-	✓	-
	우리나라의 대응 논리 및 조치	✓	✓	✓	✓	✓	✓	-
	국제규범 및 국제기구(IHO)	✓	✓	✓	✓	-	-	-
	국제적 변화 양상	✓	✓	✓	-	-	✓	-
전 달 방 식	홍보 동영상 및 관련 자료 제공	✓	✓	✓	✓	✓	✓	✓
	관련 뉴스 제공	✓	✓	✓	-	-	-	-
	네트즌 참여 (게시판 등)	✓	✓	-	✓	-	✓	-
	접근 단계	3단계	1단계	0단계	3단계	0단계	1단계	1단계
외 국 어 서 비 스	북미권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남미권	-	스페인어	-	-	-	스페인어	-
	유럽권	-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	-	-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
	아시아권	한국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
	중동권	-	-	-	-	-	아랍어	-
	종합	1개 외국어	7개 외국어	1개 외국어	3개 국어	1개 외국어	10개 외국어	1개 외국어
구분	정부 및 관련 기관					학술 단체	민간 단체	

※ ‘-’은 없음을 의미함.

V. 기존의 대응 보완 및 새로운 대응 방안

1. 동해 지명 표기에 대한 기존의 대응 보완

현재 동해 지명 표기에 대한 대응은 시정요청 활동과 홍보 활동, 연구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대응 활동에서 보강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 요청 단계에서는 시정을 요청함과 동시에 해당 웹사이트에 필요한 다양한 지도 및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은 동해 지명의 홍보 측면이 강조되어 있고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이 때문에 해외의 여러 웹사이트의 성격에 맞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자료를 개발하여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홍보 활동은 정부 기관부터 개인적 활동까지 다양한 규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관련 기관인 외교통상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해양조사원과 민간 단체인 반크와 개인 웹사이트 '다음 세대를 위해'에서 사용하고 있는 홍보 자료와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가 없어 중복되는 느낌이 강하다. 따라서 동해 홍보용 웹사이트를 하나의 웹사이트로 통일시켜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기관 및 단체에 동해 웹사이트 배너를 링크시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연구 및 전략 개발 단계에서는 전문 연구자의 확보와 양성,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동해 지명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동해연구회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명학을 가르치는 기관과 이를 전공한 지명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동해 지명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부차적으로 지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명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명 연구 및 전략 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해 지명의 확산을 위한 여러 활동에 앞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동해 지명의 국내적 통일이다. 정부차원에서 동해 지명을 홍보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국내의 일부 여론이 동해가 아닌 다른 지명의 사용을 주장한다면 이는 동해 홍보 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지명의 혼란을 주게 되며, 동해 지명보다 일본해 지명의 사용에 타당성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명을 확정지어 이를 알리기 위한 교육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온라인상의 대응 방안

동해 지명 오류에 관한 대응 활동을 국가 차원과 학술 차원 그리고 민간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국가 차원의 대응 활동은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해당 업무를 분장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구되는 업무 내용이 과중한 반면, 현재 각 기관의 업무의 동해 업무에 관한 집중도는 매우 낮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책임 부서 및 전담 직을 신설하고 관계부처간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하는 등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학술적 차원의 대응활동은 국내 지명전문가의 부재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지명과 관련한 연구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으로 동해 지명에 접근하여 동해 지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배경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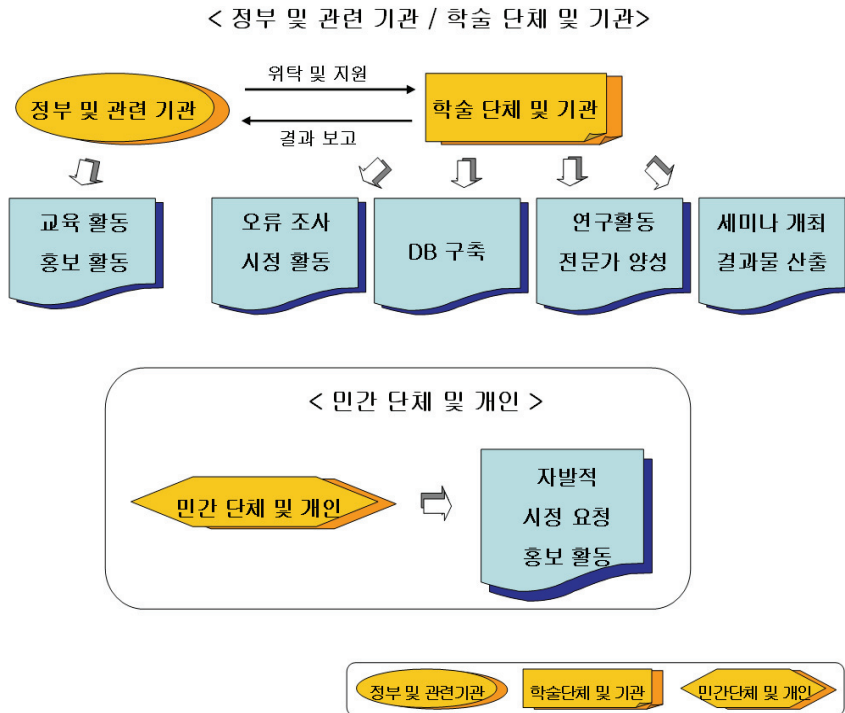
를 위해서 관련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자를 위한 지원이 제도화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의 근간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차원에서의 접근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해 지명에 관한 자료 및 대응 논리 등의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하기 위해서 민간 단체와 정부 및 학술 단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재는 여러 활동 기관과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 체계 속에서 민간 단체의 특징을 살려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가·학술·민간 차원의 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응활동을 토대로 미진한 점을 보완하거나 체계를 재정비하여 동해 지명의 오류 시정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제1안에서 제3안은 정부 및 관련 기관, 학술단체 및 기관은 비교적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고, 민간 단체 및 개인의 활동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4안은 정부 및 학계와 민간 단체 및 개인 수준이 함께 협력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제1안은 동해 지명에 관한 업무를 학술 기관에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안이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학술 단체 및 기관에 동해 지명 업무를 위탁하고 연구 지원을 하며,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한다. 학술 단체 및 기관에서는 오류조사 및 시정활동, DB 구축, 연구 활동 및 지원, 전문가 양성, 세미나 개최 등을 총괄하여 동해 지명에 관해 전문적으로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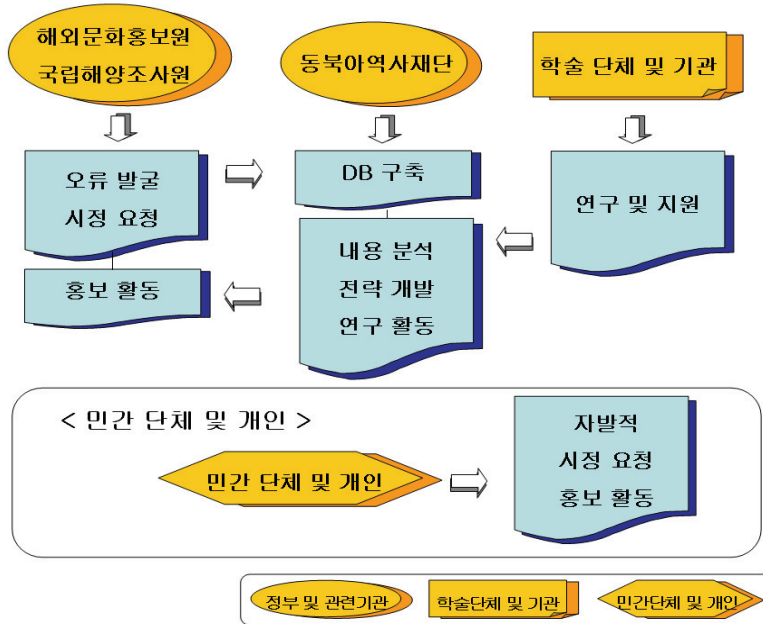


[그림 24] 학술 기관이 전담하는 안(제1안)

이 방안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하나의 기관이 전담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전문 기관 및 대학의 관련 학과와 같이 이미 구비되어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해 지명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전문가의 양성이 가능할 것이다.

제2안은 현행 체계와 같이 동해 지명 업무를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되 업무의 분담 및 협력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이다. 현재 오류 발굴 및 시정요청 활동, 홍보 활동이 중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기관별로 분담하여 전문화시키는 것이다.

< 정부 관련 기관 / 학술 단체 및 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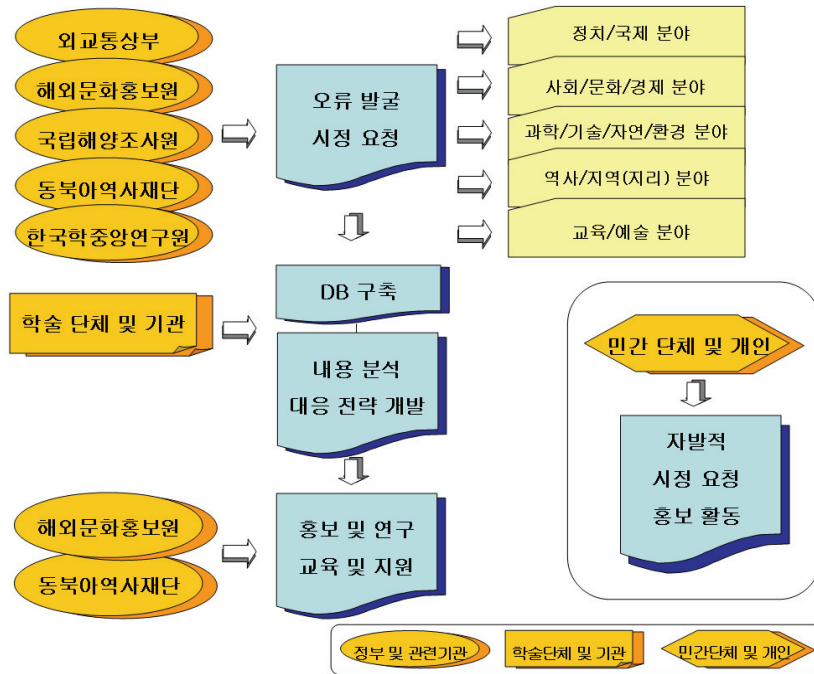


[그림 25] 대응 활동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안(제2안)

해외문화홍보원과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류 발굴 및 시정 요청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 자료를 토대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DB를 구축하고, 내용 분석 및 전략 개발, 연구 활동을 한다. 학술 기관 및 단체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지원 한다. 해외문화홍보원과 국립해양조사원의 역할 분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이 해양측량과 관련하여 IHO 회원국을 주요 대상으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이 서로 연계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치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제3안은 각 부처 간의 대응 활동의 중복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각 기관에서 동일한 형태의 대응 활동을 중복해서 하되, 온라인상의 대응 대

< 정부 및 관련 기관 / 학술 단체 및 기관 >



[그림 26] 대응분야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안(제3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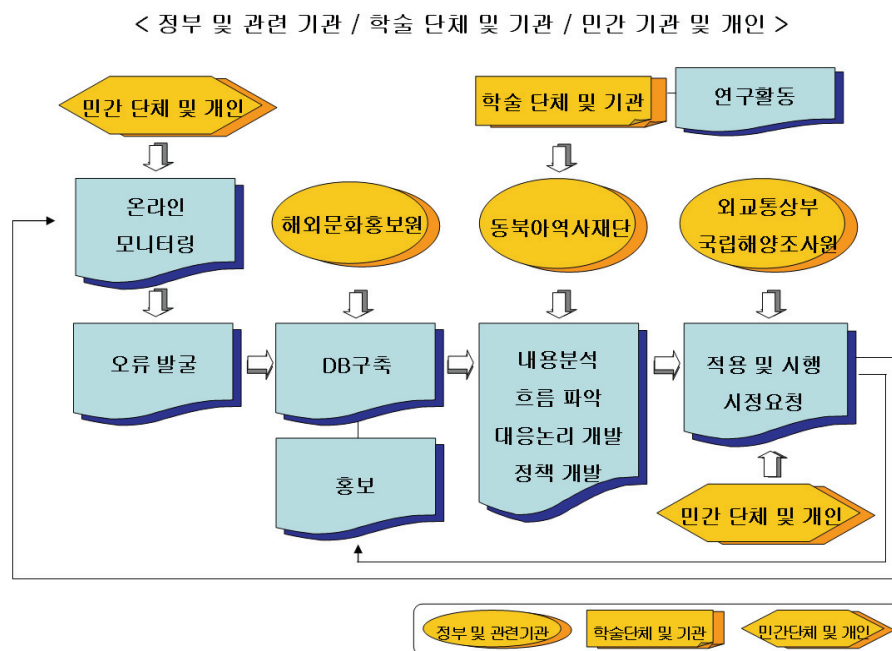
상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는 방안이다. 대상 웹사이트를 분야별 혹은 언어권별로 나누어 웹사이트를 중복되지 않게 검토하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업무 내용을 분담하기 위한 방법 중 첫째는 온라인공간상의 다양한 영역을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정치 분야의 웹사이트는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고, 사회/문화/경제 분야의 웹사이트는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과학/기술/자연/환경 분야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역사/지역(지리) 분야의 웹사이트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교육/예술분야의 웹사이트는 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영어권, 프랑스어권, 스페인어권, 중국어 및 일본어권, 아랍어권, 러시아어권 등 주요 언어권으로 온라인 공간

을 분할하여 각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각 기관에서 담당하는 조사 대상을 분담하여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웹사이트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2안과 제3안은 학술 단체 및 기관에서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제1안처럼 관련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안으로도 변경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제4안은 현재 각 수준의 기관의 강점을 살려 하나의 업무 흐름 체계를 갖도록 조직한 방안이다. 현재 정부 및 관련 기관, 학술 기관과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대응 활동의 중복을 피하고, 각 기관별로 협력 체계를 갖추도록 한 방안이다.



[그림 27] 정부-학술-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안(제4안)

온라인상의 오류 발굴은 범국민적 차원으로 모든 국민의 관심 속에서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반크를 중심으로 민간 단체 및 개인이 모니터링과 오류 발굴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여, 발굴한 오류를 해외문화홍보원의 오류시정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다. 해외문화홍보원은 DB를 구축하여 동북아역사재단에 자료를 제공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해외문화홍보원의 자료와 동해연구회 등의 학술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온라인상의 지명 오류에 대해 분석하고 흐름을 파악 및 연구 활동을 한다. 외교통상부 및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마련한 중·장기적 대응 논리를 가지고 국제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시정 요청 활동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한다. 이 방안은 오류 발굴 작업을 민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류 발굴 업무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VI. 결 론

동해 지명은 1929년에 국제수로국(IHB)에서 발행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Japan Sea’로 수록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잘못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온라인 공간에 반영되어 현재 많은 웹사이트에서도 일본해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은 정보의 이동이 쉽고 빠른 특징으로 인하여 오프라인보다 큰 파급력을 갖는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00개의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였다. 2007년에 조사한 20개의 웹사이트를 정밀 조사하여 동해 지명 표기의 변화 내용을 조사하고, 동해 지명 표기에 따른 웹사이트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동해 지명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의 활동 내용을 조사·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동해 지명의 표기는 7개의 형태로 구분하였다. 하나의 지명만 표기하는 단독표기 형태는 동해 단독표기와 일본해 단독 표기로 구분하였고, 두 개의 지명을 같이 표기하는 병기 형태는 동해 우선 표기와 일본해 우선 표기 형태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위의 경우를 페이지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복합적 표기 형태와 지명을 표기하지 않는 미표기 형태, 이 외의 경우를 기타로 분류하였다.

대응 기관 및 단체는 국가차원과 학술차원, 민간차원으로 구분하여 총 10개의 기관 및 단체의 활동 내용을 조사하였다.

위의 내용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0개의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동해 지명과 관련된 내용이 없

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웹사이트에서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물론 병기 형태를 취하는 웹사이트도 일부 있었으며, 복합적 표기 형태를 갖는 웹사이트도 비교적 많이 있었다. 일본해 표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동해 지명의 문제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IHO의 공식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의 부족으로 문제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둘째, 정밀 조사한 20개의 웹사이트 중 2개의 웹사이트에서 동해 지명의 표기가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독일의 벨트아틀라스 웹사이트는 러시아 지도에 일본해의 단독 표기를 동해 우선 병기 형태인 ‘East Sea(Sea of Japan)’으로 시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동해 지명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영어판은 한국 관련 페이지에 동해 지명을 ‘East Sea(Sea of Japan)’으로 표기하던 것을 바다 지명을 모두 삭제한 미표기 형태로 변경시켰다. 이는 동해 지명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명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셋째, 20개의 웹사이트 중 미국의 언론기관인 블룸버그통신과 영국의 로이터통신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두 개의 언론사 모두 일본해 위주로 표기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전송된 기사 중 동해 우선 표기 형태로 병기하여 작성된 기사가 일부 있었으나 일본해로 작성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블룸버그통신이나 로이터통신 본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 통신사 본사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 요청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 있는 해외 기업의 지사나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해 지명에 대해 바로 알리고 사용을 촉구하는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온라인 웹사이트 중 동해 지명과 관련된 내용이 검색되지 않거나, 동해 지명과 무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동해 지명에 대해 검색이 되지 않는 기타의 경우가 있었다. 이는 주로 동해 지명에 우호적인 웹사이트의 일본 관련 페이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한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 동해 지명 자체를 알리지 않으려는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온라인상의 동해 지명의 확산 및 오류 시정을 위한 활동은 시정요청 활동과 홍보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시정 요청 활동을 하는 기관은 해외문화홍보원과 반크가 있다. 시정 요청 활동은 웹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를 발굴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시정을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동해 지명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홍보 활동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하고 있으나 내용이 중복되고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홍보웹사이트를 통합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해외의 웹사이트 및 기관에서 필요에 맞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지도 및 홍보물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동해 지명을 알리기 위해서 동해 지명의 국제적 통일이 선행되어 장기적으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 및 연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동해 지명에 관한 오류 시정 및 홍보 활동과 같은 대응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동해 지명에 관한 업무를 학술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학술 단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학술 단체 및 대학의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연구 활동의 지원과 전문가 양성의 기반이 마련되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둘째는 대응 활동을 분담하고 협력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다. 동해지명의 대응 활동을 시정요청 활동, DB구축, 자료 분석, 연구 활동, 홍보 활동 등으로 나누어 각 기관에서 하나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각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대응 활동의 중복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대응 활동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공간의 영역을 구분하여 각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분야별 혹은 언어권별로 구분하여 활동 대상이 되는 웹사이트의 중복을 피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넷째는 정부와 학계, 민간 단체의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가와 학술, 민간 차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범국민적으로 동해 지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동해 지명에 관한 대응 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의 자료 수집, 현재까지의 대응 활동에 대한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동해 지명에 관한 온·오프라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의 수립 및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와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네 가지 방안 중 학술 단체 및 기관이 전담하는 첫 번째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학술 기관 및 단체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자료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술기관으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연구와 대응 활동이 가능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한 장기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해 지명을 포함한 국가 간의 영토 및 지명 분쟁의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지도에 표기된 동해 지명에 관한 공시적·통시적인 연구, 일본에서의 동해 지명 연구와 대응 활동, 한국과 일본의 동해 지명에 관한 활동의 비교, 동해 지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과 분위기에 관한 연구, 동해 지명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에 관한 분석 등 다각적인 측면의 동해 지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동해 지명에 관한 대응 활동이 더욱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장길부, 1997, 땅이름 국토사랑, 집문당
-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 한·중·일 과거사 문제와 외교적 대응전략
- 김은규·이정아, 2006,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문화산업: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이해, KT문화재단
- 김 신, 1997, 잃어버린 동해를 찾아서, 두남
- 김 신, 2002, 동해와 국제수로기구, 두남
- 김 신, 2004, 동해의 경계와 명칭, 지영사
- 김 신, 2005, 동해연구-동해지명표기의 역사적 이론과 전략-, 지영사
- 동북아역사재단, 2007, 동해·독도 온라인 표기 오류시정 연구용역보고서
- 외교통상부·동북아역사재단, 2007, 2천년 동안 사용된 이름 동해
- 이병선, 1996, 일본 고대 지명연구, 아세아문화사
- 이정록·구동회, 2005, 세계의 분쟁지역, 푸른길
- 이희연, 1991, 지리학사, 법문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지식정보시대와 공간·환경의 패러다임 전환
- 정책홍보혁신포럼, 2005, 이젠 정책 e홍보다-온라인 정책홍보 혁신매뉴얼
- 하름 데 블레이, 2007, 분노의 지리학, 천지인
- 한국교육개발원, 2002, 세계화 시대의 한국바로알리기-일본역사교과서의 왜곡과 그 대응; 회고와 전망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2007년 한국인터넷백서
- 해양수산부, 2006, 해양수산백서 2004~2005

2. 논문

- 권선정, 2004, 지명의 사회적 구성-과거 회덕현의 송촌을 사례로-, 지리학연구 제38권 2호, pp.167~181.
- 김순배, 2004, 지명변천의 지역적 요인,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3호, pp.65~85.
- 김덕주, 1999, 동해표기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6권 2호, pp.1~26.
- 김진기, 2005, 영토분쟁 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 접근법의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1호, pp.22~45.
- 김 신, 2003, 일제하 동해와 지명개칭사례연구, 경영사학 제18집 제1호(통권 30호), pp.279~294.
- 박윤식, 2007, IHO총회, '동해'표기 논의-일본해 표기 삭제한 해도집 발간 제안-, 통일한국 통권 제282호, p.96.
- 오상학, 2003,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지명분석, 지리학연구 제37권 3호, pp.227~240.
-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pp.89~111.
- _____, 2006, 한국 지명의 업무체계와 지명 업무의 활성화 방안,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3호, pp.73~90.
- 이명호, 1998, 유엔의 '동해, 일본해' 논전, 신아시아 제5권 제1호(통권15호), pp.226~228.
- 이기석, 1992, 발견시대 전후 동해의 인식, 지리학 제27권 제3호, pp.278~283.

- _____, 1998, 동해 지리명칭의 역사와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방안, 대한 지리학회지 제33권 4호, pp.541~556.
- _____, 2004, 지리학 연구와 국제기구-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와 관련하여-,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 1호, pp.1~12.
- _____, 2005, 동해 및 독도의 지명표기와 향후 과제, 대한지리학회·조선일보 주최 독도문제 대책을 위한 토론회, pp.93~119.
- 이상태, 1995, 역사 문헌상의 동해 표기에 대하여, 사학연구 제50권, 한국사학회, pp.473~485.
- _____, 1999, 일본해가 밀어낸 동해 명칭, 한국사연구, pp.137~155.
- _____, 2004,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동해 표기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pp.157~164.
- _____, 2007, 조선시대의 동해 인식에 관한 연구, 역사와 실학: 대호 이응조교수정년기념호, 실학사상연구, 무악실학회, pp.497~526.
- 이희연, 2002, 사이버 스페이스의 공간적 분석과 지도화, 대한지리학회지 제37권 제3호, pp.203~222.
- 이 찬, 1992, 한국의 고지도에서 본 동해, 지리학 제27권 제3호, pp.263~267.
- 임덕순, 1992, 정치지리학적 시각으로 본 동해지명, 지리학 제27권 제3호, pp.268~271.
- 서정철, 1981, 역사적으로 본 서구고지도에 나타난 한국, 지리학 제24호, pp.39~53.
- 손용택·한관중, 2006, 한반도 주변 주요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지명 왜곡과 오류 실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지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45권 4호, pp.83~106.

- 심정보, 2007, 사회과 지리 영역에서 지명교육의 현상과 필수지명의 선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pp.125~140.
- 정치영, 2005, 마을명 분석을 통한 마을 입지 및 지역성 연구: 경기도와 함경도의 비교, 문화역사지리 제17권 제2호, pp.58~73.
- 조성욱, 2004, 지명 인식과 지명의 역할, 지리교육논집 48, pp.208~221.
- _____, 2007, 사회적 영향에 의한 지명 변화 원인과 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제5호, pp.526~542.
- 한상복, 1992, 해양학적 측면에서 본 동해의 고유명칭, 지리학 제27권 제3호, pp.272~277.

3. 웹사이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정브리핑 www.korea.kr

웹호스팅국제센터 www.webhosting.info

ABSTRACT

A Study on the Naming of East Sea in Cyberspace

Choi, Misun

Geograph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day, the East Sea, a body of water between Korea and Japan, is widely called Sea of Japan. The name change dates back to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The name Sea of Japan was given to this body of water to replace its original name 'East Sea' when Korea lost its sovereignty to Japanese colonial rule. Restoring the original name East Sea to the currently known Sea of Japan became an international issue when Korea officially announced its historical claim to the area at the UN conference in 1992. Misrepresentation of the name over the water body is found more widespread online which reflect offline information .

This study was prompted by the understanding that correct and fair naming of the East Sea online is a matter of supreme urgency. This study reviewed the status of online re-naming efforts for the East Sea by various domestic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Based on the reviews, four possible alternatives were suggested at the end of this study to better deal with correcting the wrong naming of the East Sea.

To understand the current online naming situation of the East Sea, this study reviewed 100 websites of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e mass media and map makers. In addition, 'the 20 websites for special supervision' selected in 2007 by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ho is focused on renaming the Sea of Japan to East Sea, were also closely examined.

Then, the website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use of the name of East Sea or Sea of Japan. The categories are: 'East Sea only/ Sea of Japan only', 'Double equal name: East Sea/ Sea of Japan', 'Double equal name: Sea of Japan/ East Sea', 'Mixed usage', 'Blank(no marking)' and 'others'. The efforts of the associations or organizations were also categorized into 'governmental', 'academic', and 'priv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100 websites, the majority used 'Sea of Japan only'. The use of 'mixed usage' was the second majority.

Secondly, two of 'the 20 websites for special supervision' have recently changed their naming of Sea of Japan to East Sea. For example, Wikipedia changed to 'blank(no marking)', and Welt Atlas to 'Double equal name: East Sea/ Sea of Japan', which means they are aware of the naming issue of East Sea.

Third, some of the renaming efforts of associations or organizations were overlapping and th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researchers, and private units was not very effective.

Based on the results, four alternatives for a future counter plan can be considered: 1) academic units (e.g.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take

full charge, 2) several units share the responsibility and cooperate, 3) several units investigate websites but each takes charge of different website categories (e.g. government, journalism, or cartography) and cooperate, and finally 4) the government, private units, and academic units form one unit and takes full charge. Academic units taking full charge would be most appropriate as vast research for sufficient data, long-term and strategic correspondence processes are needed for this challenging renaming project.